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51
2010.03.10
내가 반 웃고 당신이 반 웃고
아기 낳으면
마을을 환히 적시리라
출산율 1.15
대한민국 비상
〈非常〉

어제는 주부맘
오늘은 워킹맘

여성이여!
다시 태어나라

당신의 잠재된 능력을 다시 발휘해보세요.
미루어 두었던 꿈을 다시 이루어보세요.
직장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당신의 내일!
이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나보세요

상담에서 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취업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취업 도우미입니다.

직업상담
- 1:1 맞춤형 취업상담 ● 취업정보 제공
-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직업교육
- 무료 직업 교육 ● 주부 인턴제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특화교육

취업알선
- 개인별 맞춤형 취업 알선
- 구인구직 정보 DB 관리

사후관리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서비스
-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여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1544-1199
대표전화 일을 구해 드립니다

저출산 '발등의 불' 정부·기업·가정 모두 나서야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2009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 결혼 및 출산 기피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이 같은 출산율은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저출산이 왜 문제가 될까.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줄면 경쟁도 감소해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인구와 상관없이 부(富)가 생산되기에 사람 숫자가 적을수록 개인당 부가 증가할 수 있으나, 가진 거라고는 인적자원이 전부인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못하다.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생산과 소비 수준, 국가 재정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소비가 줄기 때문이다. 신생아 1명이 평생 12억2천만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1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가 줄고 이에 따라 생산과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

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가 인구구조의 고령화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고령화가 가속화해 인구의 상당 부분을 고령인구가 차지한다. 당연히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국민경제의 생산 측면을 악화시킴으로써 소비 위축과 병행해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4.2퍼센트에서 2040년대에는 0.7퍼센트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고령화가 진행되면 세수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사회보장 지출 수요가 증가해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결국 저출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촉진해 국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저출산의 덫'에 빠지기 전에 빨리 정상 수준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6년 범정부적으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식 개선, 보육지원 확대, 임신·출산 지원체계 확립,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은 여러 자녀를 낳고 키우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1차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이용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우대,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적 투자와 사회 각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저출산 정책이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범국가적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겠다. G

Weekly
2010.03.10
No.51(통권 152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큰일이다. 이대로 가다간 2050년 대한민국 인구는 4천만으로 곤두박질친다. 초(超)고령사회, 씀씀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데 일할 사람, 세금 낼 사람, 부양할 사람은 부쩍부쩍 줄어만 간다. 이젠 출산력이 경쟁력. 마음 편하게 낳고 기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나섰다. 〈사진제공 · 교보생명〉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3.1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늙어가는 대한민국 기업도 국가도 非常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망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세상은 그만큼 더 새로워집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고단한 나날에도 행복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육아 부담, 학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출산과 육아가 성취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도 많고 희망도 많고 행복도 많은 대한민국,
이제 함께 만들어갑시다.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50호(3월 3일자) 기획특집 '교육개혁, 큰 희망을 싹틔우다'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신나는 학교, 기대합니다!"

"'살아나는 공교육' 기사 중 와부고등학교 사례를 읽으면서 저도 아이를 와부고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부고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정규 교육에 신경을 쓰는 학교더군요. 한창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이런 학교가 전국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_제갈성은

"'교육 강국 주한 대사 부인들의 공교육 비밀'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8학군'이나 '일류대'로 불리는 학교가 없는 핀란드, 조급한 선행학습보다 깊이 사고하는 교육에 몰두하는 뉴질랜드, 학교가 예술과 친해지는 공간이라는 체코. 하나같이 부러운 남의 나라 교육 얘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_정은순

"이번 기획특집을 보고 학생들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생들은 그저 선생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살벌한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분위기에서 학생들은 꿈을 잃어갔고, 결국 냉정한 사회에 아무런 목표 없이 뛰어들게 됐고요. 이우학교 학생들의 인터뷰는 매우 신선했습니다. 과연 내가 저 학생들 나이 때 심오한 생각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되네요."_김종섭

아이의 능력 믿고 기다리는 여유 필요"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사교육이 줄지 않는 데는 학부모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아이는 꼭 앞서야 한다는 욕심과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사교육에 매달리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부모가 아이를 믿어주는 데서 길러진다고 봅니다."_박은미

50호 건강정보 '봄이 더 무서운 협심증'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남편이 종종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데 병원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협심증은 계절이 바뀌는 3월에 많이 발생하고,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돌연사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을 보니 이대로 모른 척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오미정

50호 생활공감 '유의사항 의무 표기 등 학용품 안전기준 마련'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 학용품 살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왠지 꺼림칙했던 게 사실입니다. 학용품이 과연 인체에 안전한 재질로 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니, 이제 걱정을 덜어도 될 듯합니다."_김수진

신나는 학교… 살아나는 공교육

유의사항 의무 표기 등 학용품 안전기준 마련

18만명의 아름다운 약속

알립니다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에 1백만원 상금

전 국민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고용정책 및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고용정책 제안 포상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 중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고용정책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된다.

상반기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반기는 6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우수 제안은 내·외부 심사를 거쳐 6월과 11월 중 고용정책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백만원과 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상 3명에게는 상금 50만원과 노동부 장관상을, 장려상 10명에게는 상금 20만원을 준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매달 우수 제안 공모자를 5명씩 선정해 상금 또는 경품을 주는 '고용정책 활용 사례 수기 공모' '퀴즈 이벤트' '네티즌 참여 포인트제도 운영'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Tel **02-6902-8427 jobidea.kr**

돈 되는 특허기술, 찾아드립니다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평가나 도움을 원하는 이들이 많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기술 투자자 등이 특허 기술을 찾을 때 지원하는 '2010년 수요기술 조사'를 3월 26일까지 벌인다.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술 수요자는 신청서를 관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하면 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요기술 조사를 담당하는 한국발명진흥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약 5만 건의 특허기술 정보를 이용해 기술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올해는 기술 수요자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더욱 확대해 지원할 계획. 컨설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수요기술 진단,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지원 외에도 사업화 자금 조달 방안 등 특허 기술 도입과 사업화에 필요한 조언을 전문가에게서 받을 수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Tel **02-3459-2892, 2884 kipo.go.kr, kipa.org, ipmart.or.kr**

공감 ♥ 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3월 17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가 로

1. 옛날 우리나라 민담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나 사람 모양을 한 귀신의 하나.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심술궂은 짓을 많이 한다고 전해지죠. 뿔 달린 것도 있고, 방망이를 갖고 다니기도 하고….
3. 손가락에 장식으로 끼는 고리. 돌OO. 결혼OO. 꽃OO.
5. 이른 봄에 피는 분홍색 꽃. "봄이 되면 산에 들에 OOO 피고…"
7.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 또는 그것으로 고기를 잡는 일. "그는 OO를 하러 저수지로 갔다."
8. 아이가 여럿인 것을 일컫는 말이죠. "그 집은 다섯 자녀를 둔 OOO 가정이다."

세 로

1. 바퀴에 홈을 파고 줄을 걸어서 돌려 물건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장치. 두레박, 기중기 등이 이것에 속하죠. "OOO로 물건을 들어 올렸다."
2.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 신선한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 있고 이것이 부족하면 괴혈병이 생기죠. 아스코르빈산이라고도 해요.
4. 지난번에는 아이티에서, 이번에는 칠레에서 이것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일본도 이것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지요.
6. 우렁이와 모양이 비슷한데 네 개의 가로무늬가 있고 등에는 나선형의 껍데기가 있으며 두 눈과 더듬이가 있죠. 살에는 점액이 있고 암수한몸으로 돌 밑이나 풀숲에 사는데, 프랑스에서는 이것 요리가 인기랍니다. "OOO집을 지읍시다. 아름답게 지읍시다~"라는 노래도 있죠.
8. 아이를 많이 낳음. 저출산과 반대되는 말.

〈Weekly 공감〉 49호(2월 24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설계 2 신용장 3 숭례문 4 고리 7 십장생
세로 1 설장구 2 신문고 3 숭늉 5 리더십 6 동생

〈Weekly 공감〉 49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희종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모종길 · 강원 속초시 조양동
서동현 · 서울 노원구 하계2동
이순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조상희 · 경남 김해시 삼정동

독자들의 쓴소리, 단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 공감

국민타자
이승엽

이번 호 '독자 공감'엔 특별한 인물이 등장했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승엽이 그 주인공. 야구 글러브 대신 〈Weekly 공감〉을 들고 포즈를 취한 이승엽의 웃음이 호쾌하다.

일본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취재차 일본으로 건너온 기자는 국민타자 이승엽과 〈Weekly 공감〉의 만남, 그야말로 '공감'을 생각했다.

〈Weekly 공감〉을 들고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정작 이승엽이 이런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스러웠다. 요즘 같은 시즌 개막 직전엔 어느 선수든 조그마한 일 하나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2월 23일 미야자키 선마린 스타디움. 한국 프로야구 두산과 치른 연습경기에 앞서 두산 선수식당에 들른 이승엽은 후배들과 장난을 주고받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 후 팀 미팅을 위해 돌아서는 이승엽을 붙잡았다. 〈Weekly 공감〉을 들고 포즈를 취해달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드는 좋은 잡지이고 무료로 국민들에게 배포되는 것이라 상업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과 함께 〈Weekly 공감〉을 건넸다. 그는 〈Weekly 공감〉을 받아들고 찬찬히 훑어보더니 흔쾌히 응했다. "나라를 위한 일일 수도 있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요"라며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요미우리 구단은 선수들의 개별적인 대외 홍보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승엽은 〈Weekly 공감〉과 기꺼이 함께했다. 고마운 '공감 사랑'이자 '나라 사랑'이었다.

글 · 이선호(OSEN 야구부장)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이수미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 '김수환 추기경 선종 1년… 장기기증 서약자 크게 늘어' 라는 기사를 읽고 장기기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의 육체란 죽고 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기증을 본받아 '아낌없이 나누는 삶' 을 몸소 실천하고 싶습니다.
2. 자녀 교육으로 걱정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부모에게 이번 기획특집은 꼭 필요한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위기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장애 학생, 북한이탈 학생 등 소외계층을 향한 국가의 따뜻한 교육정책이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도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날씨가 풀리면서 가족과 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습니다. 청계천, 한강공원 등 잘 알려진 곳 말고 서울 근교 지역에 숨어 있는 명소들을 소개해주세요.

이명현 강원 춘천시 퇴계동

1. '5년 내 자연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이 뜬다' 기사를 읽으면서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홍지라는 업체가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이윤만 남기려고 사람이 먹어선 안 되는 재료를 넣어 파는 회사는 깊이 반성하고, 이렇게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일에 앞장서는 기업은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 기획특집 중에서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웃는다'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빽빽한 학원 스케줄 때문에 친구와 놀 시간도 없고, 친구와 어울리려면 학원에 가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마저 들었는데 이제는 좀 다른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사교육에 떠밀려 밤잠 설치며 공부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꿈꾸고 학습해도 얼마든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란 희망 말입니다.
3. 우리나라에 섬이 3천 개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는 놓치기 아까울 정도로 경치 좋은 곳이 많다던데, 가족여행 하기에 좋은 섬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3월 10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늙어가는 대한민국… 국가도 기업도 비상'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각종 구비서류 제출, 'e 하나로민원'이 확 줄여드립니다!

e 하나로민원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입니다.

민원 신청하러 가기 전에,

잠깐!

e하나로민원을 이용하시면,
구비서류 1건당 5,082원의 비용을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 2009년 한 해 동안 약 1,647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행정기관, 공공기관, 은행 등을 방문하시기 전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홈페이지(pr.share.go.kr)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e하나로민원 홍보대사
가수 박현빈

행정기관·공공기관·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82종

주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특허)** 특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법무)**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복지/보훈)**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자동차/선박)**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세금)**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분/주택분/토지분), 소득금액증명,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건설업등록증, 공장등록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3호), 석유판매업등록증, 어업면허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 처리업허가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축산업등록증,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부동산)**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외교)**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병무)** 병적증명서 **상훈)** 상훈수여증명서 **노동)**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분에 한함) **보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약사면허증, 방사선사면허증, 안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 단, 인감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정부민원포털(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82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全 행정기관, 58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 1개 교육기관이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기관별·민원사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홈페이지(pr.shar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http://pr.share.go.kr)

지역공동체 힘 모아 '일자리 3만 개'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자체 일자리 창출 모색

'고용을 동반하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에는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1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있는 서울시. 20, 30대 예비창업자들에게 시설과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는 '4백38개 사업자 등록'이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경기도는 도민 일자리 찾기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월부터 '경기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2백20개 기관으로 분산된 일자리 지원 체계를 연계해 취업 상담과 알선, 사회복지급여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3 경북 구미시는 지난해부터 '위 투게더(We Together) 운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며 노사 화합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노사민정이 범시민협약을 체결하면 구미시가 동참 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이 자금의 이자 중 5퍼센트 포인트를 시비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3백64개사가 참여해 1천2백95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4 전남 장흥군에서는 지난해 2월 김 양식 어민 주도로 '장흥 무산김주식회사'를 세웠다. 산(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산(無酸)' 김 양식을 도입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하고 있는 이 회사는 생산·가공·유통 단계를 일원화해 직접고용 40명, 간접고용 2백명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동아DB

최근 문을 연 경기일자리센터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곳이다.

3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지자체 우수 일자리 창출 사례가 발표되고, 3만 개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 일자리 조성을 위한 10대 정책과제가 선정됐다. 이날 국가고용전략회의에는 전국 2백46개 지자체장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부처 장관을 비롯해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 2백71명이 참석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지원체계·제도 정비 등 3개 부문에서 추진될 지역 일자리 조성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국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최우선으로 중점 추진할 정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오는 6월 말 끝나는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를 흡수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전 지자체가 경상경비, 축제성 경비를 5퍼센트 절감하고 5월까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이를 통해 마련되는 3천6백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천600억 투입

지자체들은 지역별 특색에 맞게 △자전거 수거·수리센터 운영, 도시 숲 조성(대도시형)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동네마당 조성(중소도시형) △생태길과 오솔길 등 '명품 녹색길' 조성, 천연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 사업(농산어촌형) △비무장지대(DMZ) 자원 조사(접경지역형) 등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희망근로 탈락자도 일부 흡수함으로써 희망근로 종료(6월)에 따른 지역 고용시장의 충격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 장흥군의 '장흥 무산김주식회사'와 같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도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수익창출형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된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1백76억원을 들여 '1시군구 1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올해는 2백30개, 2011년 3백 개, 2012년 4백 개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도 비중 있게 추진된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1백49개 시군구)에 연내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 상담 및 알선 기능이 강화된다. 고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기업 은퇴자,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하고 국가직업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을 연결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취업 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취업 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 일자리 조성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부문	과제
공공 부문	생산적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Post-희망근로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구조 개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육성
민간 부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
	'청년창업 프로젝트' 확산
지원체계·제도 정비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정비
	일자리 정보·통계시스템 정비
	지역별 일자리 실적 공시·평가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와 '잡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 발굴반'도 운영하게 된다.

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와 '청년창업 프로젝트'도 확산된다. 올 6월까지 대구시의 '고용 우수기업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50퍼센트) 제도'를 타 지역에 확산하고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 지원, 물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2012년까지 3년간 3천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를 올 7월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소요 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에게 "지자체에서도 고용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놓고 일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하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을 올해 말까지 계속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천억원을 희망근로사업에 쓰는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150초 → 10초
2020년까지 지진경보 단축키로

23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이티 지진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칠레에서 리히터 규모 8.8의 강진(强震)과 지진해일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지진대역뿐 아니라 불특정 지역에까지 지진의 공포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한반도만이 여전히 지진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판'과 '판'이 마주치는 땅 밑의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

2월 2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 결혼식이 열리는 주말 외엔 비교적 한산한 이곳에 이례적으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전병성 기상청장을 비롯해 추미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신영수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의 정치인과 지진학계, 도시공학계, 산업계 인사들과 방재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한반도의 강진 발생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반도 지진대응 포럼'이 열린 것이다.

이 포럼에선 전문가들의 한반도 내 강진 발생 가능성, 예상 피해 분석과 방재기관들의 지진대책 발표가 이어졌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선 큰 틀에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했다.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유라시아판 중간에 위치해 강진의 위험에선 다소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경계에 절묘하게 자리한 일본열도는 '지겹도록' 지진 악몽에 시달려왔다.

서울에 규모 7.0 '아이티급' 발생 시 5만명 사망

그러나 판 내부 지역이라도 지진을 촉진하는 에너지(응력)가 활성단층, 즉 '살아 움직이는' 단층에 축적되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최근 주장이다. 단층은 지각운동으로 지층이 끊기면서 생긴 것으로, 지층이 잘려 있어 외부 힘에 취약한 지역이다.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이진한 교수는 "한반도에는 활성단층이 4, 5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대규모 지진이 수백 년마다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는 지진 관측의 경우 긴 주기의 반복

로이터

강진으로 칠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콘셉시온의 대형 아파트가 나무토막 부러지듯 두 동강이 났다.

적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수십 년간 관측된 지진 사례만으로 강진의 가능성을 낮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동아DB

기상청 지질감시과 직원이 지진 파형을 분석하고 있다.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는 “아이티는 약 2백30년 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가 한 번 터진 게 대형 지진이었다. 지진은 수백 년 가까운 ‘인터벌’을 두고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가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30여 년간 규모 5.0 이상 되는 지진 발생 수가 적다고 해서 앞으로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는 것은 오산”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포럼에 참석한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조봉곤 교수도 ‘지진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응기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본격 지진 관측 이전에 기록된 ‘역사’ 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한반도,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강진이 발생할 경우 예상 피해는 얼마나 될까. 삼성방재연구소 이호준 수석연구원은 ‘대규모 지진 발생 시 피해 규모’ 주제 발표를 통해 “서울과 같이 인구와 고층건물이 좁은 공간 안에 밀집된 대도시의 경우 지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노화 건축물 붕괴와 화재, 철도·지하철·차량 전복, 하천 제방과 댐 파괴에 따른 지진 수해, 가스·석유·액화천연가스 저장소 누출과 화재, 폭발 등 인적·물적으로 ‘괴멸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방재기관 역시 대도시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했다. 포럼에 앞서 2월 2일 소방방재청은 경기 광주 남한산성 인근 10킬로미터 지하에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자체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의 피해 규모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신속 대응·복구 위한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축키로

이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1천1백6명이 사망하고 2만6천4백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티 지진 발생(1월 12일) 직후인 1월 18일에는 서울 남서쪽에서 아이티 지진 규모와 비슷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전국에서 무려 5만명이 사망하고, 62만1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건물도 93만 동이 부서질 것으로 예측됐다.

대규모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지진방재종합대책은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기상청 등 관련 부처가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 뒤 수립된 것으로 8개 분야 25개 과제를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이번 지진방재종합대책은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 내진성능 목표 설정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 및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 △지진 관련 지도 제작과 활용 △내진설계 기준 제정과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조치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등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구축 △신속 대응과 복구를 위한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마련 △지진 관련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지진 전문인력 확보와 지진재해대책법 개정, 관련 규정 정비 등이다.

한편 지난해 8월 지진조기경보체계 중심의 ‘국가 지진 대응체계 고도화 기본 계획’을 수립한 기상청은 지진 감시기술 발전을 위한 ‘SAFE 비전 2012’ 정책을 선포하고, 지진통보체계 강화를 통한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 확립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 국가지진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가 지진 감시업무 능력을 제고하고, 지진 분석과 예측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나아가 현재 85~1백95초가 소요되는 지진속보 발표 시간을 점차 줄여 2015년까지 50초 내, 2020년까지는 10초 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지진 관측 자료 및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도 구축할 계획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더 좋은 세종시

모든 지역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시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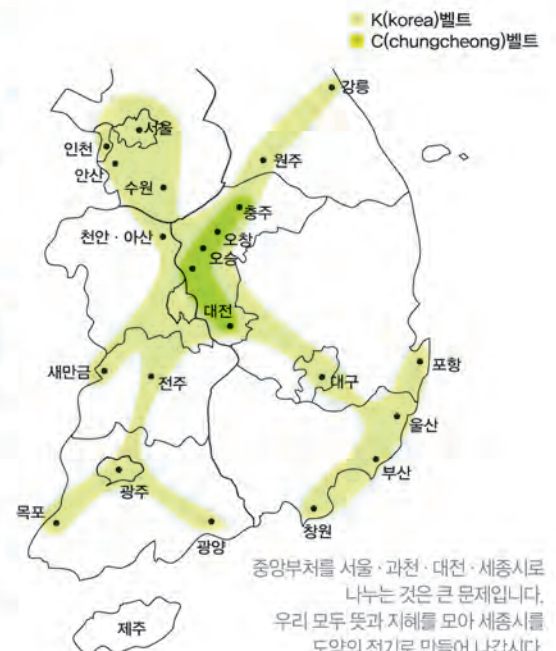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분산과 국토 발전에 효과가 큰 대기업과 대학이 입주합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나오는 과학기술과 창의적 인재는 다른 지역과 교류하며 확산돼 전체 국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기업도시 · 혁신도시도 차별없이 지원합니다

세종시 인센티브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근 지역과 함께 하는 세종시 성공 모델은 국가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분권 · 특화 · 상생의 원칙으로 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완성해 일류선진국가로 도약합시다

광역경제권 사업에 올해도 4조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기초과학에 초점을 맞추고 광역경제권은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서울 · 과천 · 대전 · 세종시로 나누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지혜를 모아 세종시를 도약의 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기 획 특 집

늙어가는 대한민국
국가도 기업도 비상〈非常〉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망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세상은 그만큼 더 새로워집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고단한 나날에도 행복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육아 부담, 학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출산과 육아가 성취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도 많고 희망도 많고 행복도 많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갑시다.

일러스트 · 이우정

늙어가는 대한민국, 줄어가는 대한국인

출산에 미래가 달렸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2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4만5천명으로 2008년 46만6천명보다 2만1천명 감소했다. 가임여성 1명당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2008년 1.19명에서 0.04명 더 줄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08년 평균출산율 1.64명을 한참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 수에 영향을 끼치는 혼인 건수도 2008년보다 1만8천 건 감소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의하면 미혼자 가운데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 남성은 2005년 82.5퍼센트에서 2009년 75.7퍼센트, 여성은 2005년 73.5퍼센트에서 2009년 73.1퍼센트로 떨어졌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4세 결혼 시 평균 출생아가 1.94명인 데 비해 25~29세 결혼 시 1.65명, 30~34세 결혼 시 1.22명, 35~39세 결혼 시에는 0.73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생 통계 1.15명… 2020년 노동력 152만명 부족

더욱이 주 출산여성(20~39세)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혼인 및 출생아 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39세 여성의 수는 2000년 1천45만명에서 2010년 9백21만명으로 줄었고, 2030년에는 7백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이 문제인 것은 무엇보다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천6백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력의 주축인 30, 40대 인구는 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2015년에는 63만명, 2020년에는 1백52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할 때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5.7퍼센트, 2020년대 3.03퍼센트, 2040년대 1.53퍼센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8년에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판'을 마련해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5년간 3대 분야 2백37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다. 텅 빈 산부인과 신생아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한다.

지원과 보육·교육비 지원 등 의료 및 보육 지원,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과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면 같은 다자녀가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아직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우선순위 조사에서 '우리나라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4명(39.6퍼센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또 '지원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24.2퍼센트), '액수가 적다'(18.6퍼센트) '저소득층에 한정된다'(17.퍼센트)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출산·자녀 양육에 친화적 문화 조성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신윤정 박사는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액을 높이고, 저출산 정책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정책이 꼽혔다. 응답자의 72.1퍼센트가 '직장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또 90퍼센트 이상이 '출산과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함께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박사는 "여성에게만 보육 부담을 안기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프랑스, 스웨덴 등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국가들의 경우 남녀평등의 사회 분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은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운찬 총리는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그간의 대책을 철저히 되짚어보고 새로운 차원에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지 않도록 결혼 지원 방안을 확충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결혼을 꺼리는 주 요인인 고용 및 소득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개발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 김용수 과장은 "보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둘째 자녀 이상 가정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이혜련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늘려주고 깎아주고 먼저 주고…

다자녀가정 주택·자동차 구매·보육 시설 등 혜택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관리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보건소의 출산준비교실에서 임신부들이 요가를 하고 있다.

박미경(42·경기 화성시) 씨는 지난해 8월 결혼 11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박 씨에겐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두 번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결혼 3년째에 유산을 한 후 아기를 갖지 못했던 박 씨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갖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배란유도제 주사를 계속 맞고 초음파 검사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다. 또 1회 시술비가 인공수정은 평균 50만원, 체외수정은 평균 3백만원이 넘는 데다 한 번의 시술로 해결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다.

정부는 박 씨와 같은 난임부부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백50퍼센트 이하(2인 가구 기준 4백81만원)의 난임부부(만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1백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백70만원) 한도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도 1회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합산 기준에서 낮은 쪽 소득의 50퍼센트만 합산해 수혜 대상도 늘렸다.

박 씨는 "불임부부들 가운데는 아이를 갖기 위해 장기 시술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고 비용 때문에 아예 아이 갖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난임부부에 인공수정 등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임신·출산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모든 임신부에게는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하며, 최저생계비 2백 퍼센트(4인 가구 기준 2백73만원) 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영양상담과 보충식품을 제공한다. 또 병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면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50퍼센트(4인 가구 기준 1백95만원) 이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가정에는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 산후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건강관리 등

을 해준다.

오는 4월부터는 모든 임신부에게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씩 산전 검사료를 지원한다. 그 밖에도 임신·출산·육아포털 아가사랑(www.aga-love.org, 1644-7373)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과 전화로 상담도 해준다.

정영수(59·경기 안양시) 씨는 2008년 2월 부인이 셋째 아이를 낳은 후 국민연금의 기존 가입기간에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노령연금 수급 시 매월 추가 연금액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덕분이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한 정 씨는 기존 연금액에 더해 매월 2만3천8백20원(2008년 지급 기준, 2009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만5천5백70원 지급)을 추가로 받았고, 부양가족연금도 1만1천4백원(2008년 지급 기준, 2009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1만1천9백30원 지급)을 추가로 받았다. 평균수명 80세를 고려하면 정 씨는 출산 덕분에 현재 가치로 9백65만원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하면 12개월을 추가 인정하고, 셋째를 출산하면 추가 18개월로 총 30개월을 인정하며, 넷째를 낳으면 총 48개월, 다섯째 이상을 낳으면 총 50개월을 가입기간에서 추가로 인정해준다.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채우석 과장은 출산크레디트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연금 수급 기회를 늘려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수 씨는 셋째 아이를 낳은 후 국민연금의 기존 가입기간에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덕분이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연간 주택 건설량 중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한다. 또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도 연간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15퍼센트, 민영주택의 10퍼센트, 국민임대주택의 30퍼센트를 우선 공급한다.

입양수수료 전액 지원하고 양육수당도 지급

또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해주고 있는데, 올 상반기 안에 1백 퍼센트 경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전기요금도 20퍼센트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때는 자녀 한 명당 1백50만원이 기본 공제되며,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백만원이 추가 공제되고, 2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백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출산뿐 아니라 입양도 지원한다. 입양수수료 전액(입양전문기관 2백40만원, 입양지정기관 1백만원)과 만 13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아 입양가정인 경우에는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출산이 법적 혼인상태에서 이뤄져 혼인율의 하락과 만혼화 경향은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결혼지원센터(www.match.kr)를 통해 저비용으로 결혼을 알선하고 결혼 준비와 가정생활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82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육아를 여성에게만 맡기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현역 장병들에게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녀(임신 중 태아 포함)가 있는 현역 입영 대상자는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하고, 1년 이내에서 입영 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G

글·이혜련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2010년 달라지는 저출산 지원정책

구분	내용
난임부부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에 대해서도 지원 – 1회 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퍼센트만 합산 산정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백50퍼센트 이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30만원으로 확대 지원
보육 지원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의 둘째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전액 지원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완화 –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75퍼센트만 합산 반영
영·유아 건강검진	만6세 미만 영·유아에 총 6회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으로 만 4세 추가 * 구강검진은 3회로 확대
	만 2세, 만 3세에 필요한 건강교육 1종 추가
	유소견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셋째 자녀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입소권 부여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공급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 포함 * 공급면적 85제곱미터로 확대
승용차 취득세, 등록세 경감	취득·등록세 1백 퍼센트 경감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야간·휴일 보육기관 늘린다

3천6백여 곳 운영… 24시간 체제도 1백22곳

'행복 끝! 고생 시작.' 기다리던 첫아이를 가진 부부라면 주변에서 한 번씩은 들어본 말일 것이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가슴 벅찬데 고생 시작이라니? 어, 그런데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에겐 물질적으로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아이에게 헌신할 수 있는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다. 출산과 보육은 '따로국밥'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적 보육 지원은 출산 장려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부모님들이 '로또 당첨된 기분'이라고 해요." 경기 안양시 관양2동에 있는 인덕원어린이집 신경희 원장(49)이 기자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한다. 공립인 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려는 부모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이곳에 아이를 맡기는 데 성공한 부모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환호한다는 설명이다.

1998년에 문을 연 인덕원어린이집은 장점이 많다. 우선 보육비도 연령대에 따라 한 달에 15만원에서 36만원(연령대가 어려질수록 비싸다)으로, 사설 유치원 기본 보육비의 70~80퍼센트 수준이다.

그렇다고 커리큘럼이 부실한 것도 아니다. 기본 과목에 더해 특기교육으로 한문, 서예 등 5과목을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사설 유치원이 특강이라는 명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강료를 받는 반면, 이곳에선 과목당 한 달에 1천원만 내면 된다. 특기과목은 지역 내 공립 노인복지회관에 다니는 정년퇴직 교직원들이 담당한다. 일종의 '파견근무'다. 친손자 손녀처럼 아이들을 대해주니 아이들도 가족처럼 잘 따른다.

덕분에 아이들은 특기뿐 아니라 어른을 대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 생후 3개월 이하 영아반에서 7세에 이르기까지 6개 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3개월 이하 아이들은 경력

경기 안양시 '인덕원어린이집'과 같은 국공립 보육원에 자녀들을 보내려는 맞벌이 부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점심 식사를 끝내고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고 있는 이곳 아이들.

15년차 이상의 노련한 보육교사가 돌본다.

또한 이곳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장려하는 시간연장형 보육기관이라는 장점도 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보육교사들이 자상하게 아이들을 보살핀다. 여느 보육원들은 대개 오후 7시 30분까지가 정규 보육시간이다. 이처럼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양지역 내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입학 열기가 뜨겁다. 매년 11월 아이들을 새로 뽑는 기간이 오면 부모들이 줄을 선다. 그러나 웬만해선 다른 사립 유치원이나 보육원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공백이 생기지 않아 대기자가 3백60명이나 된다.

'대기자 1번 2006년생 홍○○. 엄마 말씀 : 아이를 혼자 키울 여력이 안 돼요. 꼭 좀 부탁드려요.' 대기자 명부엔 이런 호소도 실려 있다. '대기자 1번' 아이의 엄마는 2007년 3월 5일, 그러니까 아이가 두 살 때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껏 뜻을 이루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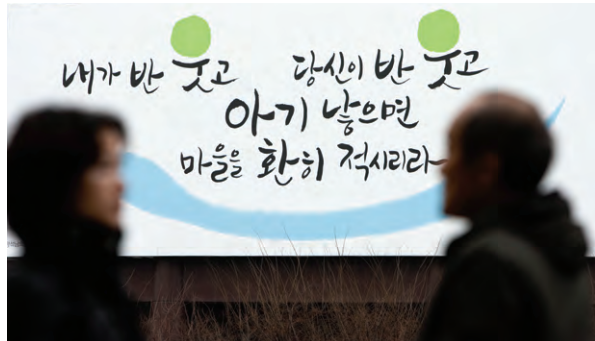
신 원장은 "임신 상태에서 태명(胎名)으로 입학신청을 하거나 심지어 '아이가 입학하지 못하면 회사에 복직하기 어렵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엄마들도 많다"고 전했다. 신 원장은 입학철마다 대기자 부모들에게 일일이 입학 현황과 바뀐 대기 순번을 통보했는지를 점검한다. 더러 "통보를 못 받았다"며 통화기록 원본을 떼어오는 엄마들도 있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처럼 0세부터 취학 전 아동들을 보육하는 국공립 보육기관의 수요는 크게 늘었다. 따라서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기관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 보육 지원 정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은 5퍼센트 정도라고 한다. 사립 유치원, 보육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에 무리하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0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92개소를 신축했다. 공동주택시설도 90여 개소를 리모델링했다.

휴일보육기관 등 늘리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인덕원어린이집의 경우처럼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3천6백75곳이 시간연장 보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휴일보육기관은 1백42곳, 24시간 보육기관은 1백22곳이다.

아이를 긴급하게 돌봐줄 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0~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못 미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 가정에는 이용요금(시간당 5천원)의 80퍼센트를 정부가 지원한다. 50~1백 퍼센트 가정에는 이용요금의 20퍼센트를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전국 2백3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사회 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출산은 고생길의 시작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범국가적인 보육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맞벌이보육료 지원제'는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25퍼센트를 뺀 나머지 소득 합산액이 영·유아 가구 평균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라면 차등보육료 대상 가구와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 지원 정책의 키포인트 중 하나인 보육·교육비 지원도 올해 일부 지원 조건을 완화해 실시한다. 일단 0~4세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중 평균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차등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맞벌이보육료 지원제'도 3월부터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부부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25퍼센트를 뺀 나머지 소득 합산액이 영·유아 가구 평균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라면 차등보육료 대상 가구와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맞벌이보육료 지원제'를 통해 약 7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제' 적용 대상도 3월부터 확대된다.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유아 가구 평균소득 하위 50퍼센트 초과~70퍼센트 이하 가구의 둘째 이상 아동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 기준 단가(17만2천원)를 지원하는 '만 5세아 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장애아에게는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38만3천원 혹은 보육시설 수납액)을 지원한다. G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전업주부에서 어린이 경제교육 지도사로…

엄마에게 직장이 생겼어요

여성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정부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거나 새로 일을 찾는 여성들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여건에 맞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 여성고용촉진제 확대 등 돌봄과 고용을 연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한다.

김은미(37·서울 도봉구 창동) 씨는 '어린이 경제교육 지도사'다. 유치원생에서 중학생까지의 아이들에게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선생님이다. 김 씨의 3월 일정표에는 일주일에 네 번꼴로 강의를 다닐 청소년수련원, 주민자치센터, 유치원 등의 명단이 적혀 있다. '동화 속 경제 이야기', '세뱃돈 굴리기', '자기주도 경제 논술' 등으로 생소한 경제 이야기를 친근하게 풀어준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강의 요청이 부쩍 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남편을 직장에 보내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보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꿈만 같다고 말한다.

"보수가 많지는 않지만 제 이름으로 적금을 하나 부을 수 있고, 아이들과 여행할 때 경비를 내기도 하니 자신감이 솟습니다. 사랑의 열매 같은 사회봉사단체에서 경제 강의를 해주면서 지식 나눔 봉사를 할 수 있어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도 있고요. 앞으로는 학교 방과후 교실에서도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결혼 후 4년간 은행에 다니다 큰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퇴직하고 전업주부로 산 지 8년째. 재취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던 김 씨에게 새 출발을 하게 해준 곳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다.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거나 직장 경험이 없는 여성들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해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개설된 '어린이경제교육지도사' 양성과정을 지난해 가을 수료한 후 어린이 경제교육 전문지도사가 된 것이다. 함께 공부한 주부 25명 중 절반이 김 씨처럼 지도사가 됐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의 수혜자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1.3퍼센트보다 낮은 54.7퍼센트.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 여성 중에는 일하고 싶어도 결혼, 출산, 육아 부담 때문에 그만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2014년까지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수준인 60퍼센트대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 △여성고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 선물

경력단절 여성이란 '임신, 출산, 육아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뒀거나 일을 한 적이 없지만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말한다.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15세 이상 여성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만명이 넘고, 특히 경제활동 핵심 연령인 25~45세 여성의 34.2퍼센트(4백여 만명)가 경력단절 상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취업 욕구가 있는 여성이 2백61만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알선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에 새로 개설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을 지원해주는 곳이다. 지난해 전국 72개 새일센터에 개설된 4백36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통해 1만3백95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45퍼센트인 4천6백80명이 취업, 창업, 인턴근무 등을 통해 새로 일자리를 찾았다.

이 밖에 여성가장 취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CEO 양성, 중소기업 취업 여성 근로자를 위한 취업장려수당 지급, 취업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하게 돕는 지원책이다. 정부는 현재 77곳인 새일센터를 2012년까지 1백 곳으로 늘리고,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재취업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남성연 사무관은 "최근 새일센

조영철 기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전국에 77개소가 개설돼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돕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새일센터.

터의 1년 실적을 평가한 결과 구직 여성들의 취업률이 52퍼센트에 달하는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 성과가 높았다"면서 "올해는 광역 새일지원본부를 통해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의 여성들에게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 퇴직 없이 육아·일 조화롭게 병행

"오후에 출근하니까 오전에는 느긋하게 두 살배기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 한참 손이 갈 때인데 유연근무제 덕분에 육아 걱정을 한결 덜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다니는 A(30) 씨는 올 초부터 오후 1시에서 5시까지만 근무한다. 지난해 여름부터 은행에서 만 4세 미만 아이를 둔 직원에게 적용하는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덕분이다. 급여는 정상근무 대비 50퍼센트 선이지만 퇴직하지 않고도 아기를 돌볼 수 있어 출산한 여직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유연근무제'란 일하는 사람이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탄력근무 체제다. 선진국에서는 창조적이고 유연한 근무 형태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근무제, 장기휴가제 등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추세다. 최근 우리 정부도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를 앞장서서 시행해 민간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여성부 등 정부 부처와 부산시, 경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일제, 단시간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에도 유연근로제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삼성테스코는 계산 업무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되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사내교육 참여 혜택을 주고 있다.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야간 전담근무 간호사, 업무집중시간대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유연근무제가 자칫 근로조건, 사회보험 가입 등에 차별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차별시정 종합상담센터(가칭)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고용촉진제도 |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 지원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바꾸려면 고용보험법의 실질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기간제 파견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기간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다시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임신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30만~6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출산, 육아기(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둔 경우로 기존 생후 3년 미만에서 확대함)에 이직한 여성 근로자에게 첫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의 '출산여성 신규고용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퇴직하는 것을 막고, 재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 글·최은숙 기자

지자체 "출산율을 높여라"

3자녀 이상 가정에 연 720만원 등 지원책 잇따라

인구 감소 위기는 지자체들에 더욱 절실하다. 인구가 줄면 지자체는 당장 세수(稅收)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를 걱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기구는 물론 직제까지 줄여야 한다. 지자체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직장남녀 미팅 주선에서 출산장려금, 불임시술비 지원까지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걸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일러스트 · 남동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2008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1.19명)보다 낮은 1.01(서울), 0.89(부산), 1.07(대구)명에 불과하다. 저출산은 초등학생 수 급감으로 이어진다. 서울시가 3월 1일 발표한 '2009 서울 초등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등학생 수는 59만9천명으로 27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교실당 학생 수도 같은 기간 62명에서 29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8명에서 21명으로 줄었다. 일부 학교는 '폐교' 압박까지 받고 있다. 학교가 살기 위해선 초등학생을 모셔와야 할 판이다.

학교뿐 아니다. 인구 감소가 절박한 문제가 되자 지자체들은 이런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전국 2백32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 정책들을 모아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2009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 결과(2009년 11월 발표) 대구 서구 등 13개 지자체가 출산 장려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대구 서구는 '예비아빠 교실'을 운영하고,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아빠가 예방접종을 받도록 캠페인을 펼치는 등 여성 친화적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구 서구는 이와 더불어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백만원) 등 출산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보육·교육비 지원, 양육지원수당 도입,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김포시, 강원 영월군, 전남 장성군 등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는 둘째부터 다섯째 아이까지는 1백만원, 여섯째 아이에겐 3천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양육비 지원으로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불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과 직장남녀 미팅 주선 등도 이채롭다.

"결혼 늘어야 출산율 는다" 다양한 결혼 시책 추진

경기 김포시는 '3R 홍보플랜'이 주목받았다. '3R'은 'Recognition(인식), Response(공감), Realization(실현)'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 실질적 노력을 이끌어내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가정 우대 할인가맹점 3백46곳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촌지역인 강원 영월군은 보육 환경을 개선한 점이 돋보였다. 영월군은 15개 보육시설의 어린이 6백70명을 대상으로 '새싹 키우는 파파 할머니' 정책을 추진해 보육 환경을 한층 윤택하게 만들었다. '새싹 키우는 파파 할머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매칭(Matching)사업'으로, 60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을 아이들을 위한 손길이 필요한 보육시설에 파견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과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역시 농촌지역인 전남 장성군은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1자녀 가정에 1백20만원, 2자녀 가정에 2백4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 7백20만원을 지원한다.

또 10개월째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하며, 신생아를 낳은 산모가 산후조리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군에서 산모 도우미를 파견한다.

이 밖에 서울 용산구, 대구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경기 성남시, 충남 아산시, 경남 마산시 등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울 용산구는 '용산 i사랑 교실' 등 출산과 임신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출산 장려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했으며, 대구 동구는 한의약 불임치료를 실시하고 둘째 이상 출생아 또는 태아(임신 36주 이상)를 대상으로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다자녀·다문화가정에 의료약제비와 셋째 아이 이상에게 출산용품 쿠폰을 지급하며, 광주 서구는 셋째 아이 임신축하금과 쌍둥이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또 대전 대덕구는 자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배달강좌제, 대덕 꿈나무 영어캠프 등 교육 지원을 특화하고 있으며, 경기 성남시는 초등학교 무료급식, 취학전 자녀 양육 지원,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보육 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일단 결혼이 늘어야 출산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가정·결혼 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결혼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 마산시는 셋째 아이 출산통장과 건강보험료, 저소득 가정용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김용수 과장은 "출산 장려 우수 지자체 선발은 모범적인 출산 장려 정책들을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함께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육아퇴직? 우리 회사엔 없어요

기업들 인재 확보 위해 저출산 해결 나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회사 내 보육시설에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가 하면, 임신·출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자체 모성보호 제도를 도입하기도 한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조정윌 기자

조정윌 기자

아모레퍼시픽 서울 어린이집은 직원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기는 직장보육시설이다. 김민경 씨는 둘째 아이를 이 곳에 맡기고 출근한다. 직장인 부모가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러 올 때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의 하루 일과를 기록한 '데일리 저널'을 보여준다(맨 위부터 시계 방향).

"첫째 제연이(5)는 일반 어린이집, 둘째 수인이(2)는 회사 보육시설에 맡기니 두 곳이 얼마나 다른지 알겠더라고요. 회사에서 직원을 배려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은 모든 면에서 아이와 부모를 배려해준다는 점에서 확실히 달라요."

김민경(38·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팀) 씨는 출근하면서 두 아이를 각각 다른 곳에 맡긴다. 제연이는 서울 용산로 한강로 회사 근처 일반 어린이집, 수인이는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서울 어린이집'으로 향한다. 만 5세가 돼 이곳을 졸업한 제연이가 최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면서 김 씨가 느끼는 차이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처럼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엄마는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 불안하잖아요. 회사 어린이집은 이런 엄마 마음을 잘 알아요.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잠깐 들러도 되고요. 직장인 부모의 사정에 따라 문 여는 시간을 조정해주니 시간에 맞추기 위해 동동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모레퍼시픽, 회사 어린이집 운영 등 육아 적극 장려

아모레퍼시픽 서울 어린이집의 양수정 원장은 "회사가 육아를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가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된다"며 "회사 인트라넷에서 부모와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등 직장인 육아의 특수성을 잘 살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가을 일본 공영방송 NHK에 직장보육시설 우수 사례로 보도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직장보육시설을 일찌감치 도입한 회사다. 2004년 서울 어린이집을 연 데 이어, 2005년에는 경기 용인시 기흥의 기술개발원과 인재개발원 직원들을 위해 용인 어린이집을 열었다. 2007년 문을 연 수원 어린이집까지 합치면 모두 3곳이다. 이들 보육시설은 대부분 만 1~4세까지 한창 부모 손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돌봐준다.

한국프뢰벨의 편민(33)·정혜경(32) 씨 부부는 세 살 된 아들 아인이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프뢰벨어린이집에 맡긴다. 회사 안에 어린이집이 있으니 아침마다 아이와 헤어지는 발걸음이 가볍다. "아이가 아프면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소아과를 찾는다. '눈칫밥'을 먹지 않고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으니 업무

집중도가 높다"는 게 이들 부부의 얘기다.

임신 7개월째인 정 씨는 "직장 어린이집 덕분에 육아에 자신감이 생겨 둘째를 갖게 됐고, 다른 직장 동료들도 둘째를 갖는데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는 출산 예정인 여직원이 10여 명이다.

이곳 프뢰벨어린이집에는 생후 7개월에서 만 3세까지 아이들 20명이 있다. 모두 한국프뢰벨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맡기는 아이들이다. 서울 본사 직원 가운데 여성이 70퍼센트인 이 회사에서 3~10년차의 경력 있는 여성 인재를 붙잡아두는 방법은 바로 어린이집이었다.

이들 회사처럼 사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서울아산병원, 포스코, 현대중공업, 엔씨소프트, SK에너지 등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서울 가산동, 경기 평택, 경남 창원, 경북 구미 등 주요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서울 소공동 본점에 사내 어린이집을 열고 전국 점포로 확대할 예정이다.

푸른보육경영은 2003년 3월에 대교, 하나은행, 한국IBM 등 세 회사가 공동으로 자녀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 직장보육기관이다. 공동 운영 취지에 공감하는 회사가 늘면서 지금은 NHN, 포스코, 한국철도공사, 금융감독원, LH공사, SBS, CJ제일제당 등에서 위탁한 직장보육시설과 직영시설을 합쳐 전국에서 45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대전시의 뿌리와 새싹어린이집은 대덕테크노밸리 인근 45개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이다. 이곳은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금과 기업 출연금을 합쳐 2008년 11월 문을 열었다.

유한킴벌리는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문화를 국내 기업 중 가장 모범적으로 뿌리내린 곳으로 꼽힌다. 2008년 말 유한킴벌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한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로 뽑히기도 했다. 또 같은 해 한겨레신문이 발표한 '여성 배려와 가족친화경영이 잘 이루어질 같은 기업'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유한킴벌리, 유니세프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선정

이 회사에 근무하는 임신부의 경우 태아 검진시간과 탄력적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산전 2개월·산후 90일 휴가뿐 아니라 유·사산 휴가도 쓸 수 있다. 또 아이를 출산했을 때 정기 육아휴직 또는 시간제 육아휴직도 가능하며, 수유나 휴식을 위해 서울 강남 본사와 경기 군포, 대전, 경북 김천의 3개 공장에서 운영하는 전용 모성보호시설인 '느티나무 그늘방'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의 성장 주기에 맞춰 자녀 교육비도 지원한다. 취학 전 2년 동안 2백40만원의 유아교육비를 주고, 대학 졸업 때까지 학자금을 지급한다. 또 사원뿐 아니라 사원 가족의 정신건강을 보살펴주는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과 가족 간병을 위한 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본사와 지방 공장에는 '느티나무 그늘방'이라는 여성 휴게실 겸 수유실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회사로 유한킴벌리가 꼽힌다. 이 곳에서는 임신부를 위해 탄력적 근무시간 선택, 전용 모성보호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유한킴벌리 PR실 김영일 과장은 "유한킴벌리의 가족친화경영은 출산과 육아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일과 삶을 조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정부에서도 유한킴벌리와 같은 모범 사례를 발굴해 널리 홍보하고 있다. 여성부는 2008년 12월 대한항공과 첫 '여성친화기업문화 확산 협약식'을 가진 데 이어 CJ제일제당, KT, SK텔레콤 STX조선 등 지금까지 모두 8개 기업과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친화 기업이란 여성 인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뜻한다.

지난해 6월 금융권 최초로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한 KB국민은행은 여성 관리자 비율을 당시 13.6퍼센트에서 매년 2퍼센트 포인트 늘려 2013년까지 21퍼센트로 올리기로 한 협약을 착착 진행 중이다.

NHN은 협약을 계기로 현재 34퍼센트인 정규직 여성인력 비율을 2013년까지 40퍼센트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고, 모유수유실과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만 1년간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글 · 최은숙 기자

"우리 직원들 유행어는 '셋째 낳을까?'"

기업 출산 장려운동 선구자 '천호식품'

천호식품

2007년 셋째를 낳은 김현주 대리에게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오른쪽)이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주고 있다.

출산 장려운동을 펼치는 기업 중에서도 건강식품 전문 기업인 천호식품(부산시 덕포2동)이 으뜸으로 꼽힌다.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 정책을 시행해온 천호식품은 직원이 첫째와 둘째를 낳을 경우 각각 1백만원, 셋째를 낳으면 무려 5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거기다 셋째를 낳으면 2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총 7백20만원의 육아지원금까지 지급한다. 다시 말해 셋째까지 낳으면 회사로부터 총 1천2백2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사실 셋째는 계획에 없었어요. 회사에서 나오는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 유혹에 넘어가 낳은 거죠(웃음)."

2007년 8월 셋째를 출산한 이 회사 김현주(37) 대리. 그에 따르면 천호식품은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회사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앞장선다고.

"직장여성이 임신을 하면 위기감을 느껴요. 진급은 꿈도 못 꾸고, 출산휴가 다녀오면 내 책상이 없어지진 않을까 초조하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오히려 임신을 하면 더 대우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셋째 가져볼까' 라는 말이 회사의 유행어가 됐죠."

천호식품은 이 외에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전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중학생은 육성회비,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 대학생 자녀는 매 학기 3백만원을 지원한다.

놀라운 사실은 천호식품이 지난해 2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는 것. 김영식(59)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대한민국 부자 만들기(cafe.daum.net/kys1005)'에 신청을 한 뒤 셋째를 임신한 사람 중 선착순 1백15명에 한해 2백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신청자 수는 어느덧 2천5백명을 넘겼다.

"나라가 잘살려면 우선 일할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 물꼬를 터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할 사람 많아야 나라가 부강해지죠"

김 회장이 양육비를 주는 이유다. 양육비는 매달 8일 20만원씩 10개월간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12명에게 처음 지급한 이후 올 1월에는 8명, 2월에는 20명이 늘어나 2월 8일까지 총 40명에게 지급했다. 그 종잣돈은 2008년 출간돼 10만 권 이상 팔려나간 김 회장의 저서 〈10미터만 더 뛰어봐〉의 인세 수입과 강연료를 합쳐서 마련한 2억원. 처음에는 2억원에 한해 선착순 1백명에게 2백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점점 인세 수입과 강연료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지급 대상이 1백명에서 1백15명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천호식품은 앞으로도 인세 수입과 강연료가 늘어나는 대로 양육비 지원사업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여성의 가치 느껴야' 격려에 고마움"

임신 8개월차 문화체육관광부 정혜순 씨

살면서 요즘처럼 몸에 집착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하루 세 끼를 꼭 챙겨먹고, 행여 감기 바이러스 등 몸에 유해한 것들이 내 몸을 노리는 건 아닌지 늘 노심초사한다.

나는 직장인 임신부다. 출산 예정일은 5월 초. 임신 8개월의 '배불뚝이'다. 솔직히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직장을 계속 다닐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 임신 초 한 차례 유산의 위험을 경험하고 난 뒤 아기를 힘들게 할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을 쉬겠다는 결정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예전처럼 일 욕심을 부릴 수 없는 임신부인 나. 미안한 마음에 출산·육아휴직 후 대체인력을 남자로 뽑아달라고 건의했더니 직장 상사는 호통을 쳤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적인 일이 아니며, 그 임무를 수행하는 여성의 가치를 폄훼하지 말라' 고…."

조영철 기자

입덧을 영어로 '모닝 시크니스(Morning Sickness)'라고 한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고통. 왜 그렇게 부르는지 막상 겪어보고 나서야 알았다.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헛구역질과 구토는 임신 6개월이 다 되도록 끝날 줄 몰랐고, 매일 아침 출근 버스에서 벌어지는 그 식도 역류현상을 참아내는 건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다. '출근 시간이 단 한 시간만이라도 늦춰진다면….' 차마 휴직을 선택하지 못한 나로서는 아침마다 그저 이런 욕심만 낼 뿐이었다.

임신 후 겪게 되는 몸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시로 잠이 쏟아졌고, 어지러움과 허리·엉덩이 통증 등이 이어졌다. 당연히 일에 대한 적극성과 집중도는 떨어졌고, 외부 출장 등 몸으로 뛰는 일이라도 생기면 한 발 뒤로 빠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내가 봐도 직장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였다.

하지만 예전처럼 몸 생각 안 하고 이 악물고 덤벼들 처지도 못됐다. 일 욕심에 내가 무리하면 그 피해가 곧바로 뱃속 아기한테 돌아갈 터. 아기인가,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인가. 고백하건대 결국 나는 '동료에 대한 미안함'을 선택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선배는 내가 임신 후 지금껏 지방 출장을 도맡아 가고 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을 생각하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이번 건은 제가 갈게요"라고 선뜻 나서지 못했다. 대신 "선배, 저 휴직 들어가고 대체인력 뽑게 되면 꼭 남자로 뽑아요"라는 말을 농담 '49퍼센트'에 진담 '51퍼센트'를 섞어 건넸다. 임신부 직장인에게 어쩌면 일은 자기 욕심인 것만 같았다.

얼마 전 이런 마음을 상사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그것도 가능하면 남자로 뽑아달라는 청탁이었다. 그런데 그 상사의 답변이 예상외였다. 한 번 더 그런 말을 하면 나를 여성부에 고발하겠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적인 일이 아니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의 가치를 폄훼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옳은 말이었다. 아마도 내가 임신부가 아니었다면 나 역시도 임신부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임신부가 되고 나니 나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동료 앞에서 작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늘 그러하듯 경험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같다. 임신한 여성 직장인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맘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란 무엇인지를 말이다. G

글 · 정혜순(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기획과)

아침마다 '이별'하는 엄마들의 이야기

"나는 '나쁜' 직장인엄마입니다"

지난해 9월 한 편의 신문광고가 워킹맘(직장인엄마)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직장인엄마들의 애환을 담은 편지글 형식의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광고가 그것. 자비 1천만원을 털어 광고를 낸 사람은 실제로 직장인엄마였다. 직장인엄마가 아니면 직장인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

조영철 기자

직장인엄마 김민경 씨는 "직장인엄마로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이와 함께 출퇴근할 수 있는 요즘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요."

20개월 된 딸 희영이를 키우는 직장인엄마 오수진(가명·31) 씨는 아침마다 '눈물전쟁'을 치른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남편을 위해 아침상을 차리는 그에게 어느새 희영이가 다가와선 조그마한 입술을 달싹이며 '곰 세 마리'를 부른다. 출근 준비로 바쁜 오 씨가 눈길 한 번 주지 않자 희영이는 그의 곁을 맴돌며 칭얼댔다. 이럴 때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희영이가 왠지 '딱 한 번만 놀아주면 안 돼요?' 하며 애원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오 씨가 출근 준비를 마친 오전 8시. 초인종이 울리며 아이 돌보는 할머니가 도착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어대기 시작했다. 집을 나서려는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 콧물을 있는 대로 다 쏟아냈다. 오 씨는 3개월의 출산휴가를 마친 첫 출근날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우는 아이를 뒤로하고 집을 나선다. 그래도 현관문 뒤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힌다.

눈물로 시작된 직장인엄마 오 씨의 하루는 길고 길다. 아침부터 몸은 녹초가 됐지만 회사에 오면 다른 직원과 비교되는 게 싫어 기를 쓰고 일한다. 똑같이 회식에 참석하고 야근도 군말 없이 한다.

'육아=여성' 인식이 일하는 엄마 벼랑 끝으로 내몰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오 씨는 바로 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하루 종일 그를 기다린 희영이가 놀아달라고 보채기 때문. 결국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이내 죄책감이 밀려왔고, 일과 양육 문제로 고통 받던 그는 마침내 정신과 상담을 고민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해졌다. 오 씨는 "아이에게 '빵점짜리 엄마'란 생각이 들어 한없이 우울해진다"며 "그렇다고 '일하는 엄마'를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2000년대 들어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50퍼센트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도 본격 직장인엄마 시대를 맞이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 배우자, 즉 직장인엄마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1982년 3.4퍼센트에서 2008년 12.7퍼센트로 약 30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었다. 이렇듯 직장인엄마는 사회와 가정을 오가

며 두 가지 몫을 톡톡히 해내는 '슈퍼우먼'이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사회의 시선에 답답하다 못해 울분이 터질 때가 많다.

직장인엄마를 괴롭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다. 특히 아이 양육에 비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엄존해 직장인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 아이가 아파 쉬려고 해도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육아휴가는커녕 출산휴가를 쓰려고 해도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회사가 부지기수다.

오수진 씨는 "며칠씩 '나인 투 파이브'를 꼬박 넘기며 일하는 나를 보고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하면 애한테 미안하지 않냐'며 비난하는 상사도 있었다"며 "일하고 있을 때는 엄마 노릇을 강조하면서 막상 어쩌다 아이가 아파 일찍 퇴근하려 하면 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인 홍영지(38) 씨는 육아와 회사생활을 병행할 수 없는 걸 깨닫고 일찌감치 직장을 그만둔 케이스. 그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일은 계속하고 싶었지만 돌봐줄 사람도 없고 불규칙적인 회사생활을 해낼 자신이 없어 사표를 썼다"고 말했다.

세 살과 초등학교 2학년인 두 아이를 키우는 11년차 회사원 김민경(36·왼쪽 사진) 씨는 한 번도 육아휴직을 써본 적이 없다. 쓰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출산휴가로 3개월이나 푹 쉬었으면 됐지…'라고 애써 자위한다. 그는 "최근 직장 동료 한 명이 큰맘 먹고 육아휴직을 했지만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나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 **며칠씩 '나인 투 파이브'를 꼬박 넘기며 일하는 나를 보고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하면 애한테 미안하지 않냐'며 비난하는 상사도 있었다. 막상 어쩌다 아이가 아파 일찍 퇴근하려 하면 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고 맡아줄 사람이 없는 등의 열악한 보육 여건도 직장인엄마들 앞에 놓인 걸림돌이다.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에선 직장인엄마가 늘면 그만큼 출산율도 늘어나는 추세. 그런데 지난해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에 그쳤다. 이는 직장인엄마가 아이를 낳아도 한 명 이상 낳지 않거나 아예 낳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다.

사회 전반적 인식 변화와 양육 인프라 구축돼야

오수진 씨를 예로 들면 그는 한 달 봉급을 거의 고스란히 양육비로 쏟아붓는다. 아이 돌보는 할머니 월급 1백40만원, 기저귀 등 아이 생필품과 식비 20만원, 예방접종비 15만원, 놀이방 30만원 등 2백만원 선을 웃돈다. 오 씨는 자신의 상황이 모든 직장인엄마의 현실은 아닐지라도 "맞벌이 부부 수입의 많은 부분이 아이 양육비로 쓰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여기는 분위기도 직장인엄마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 젊은 남편들 사이에서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긴 해도 '일과 육아는 엄마 책임'이란 해묵은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동아DB

직장인엄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육시설'이다.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직장 내 유치원을 신설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프뢰벨 직장 어린이집.

언어치료사로 일하며 중학생 남매를 키우는 최진희(42) 씨는 "애초에 남편의 가사 분배 역할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에게 아이들 돌보기나 설거지를 부탁했지만, '한 번만' 해줘도 집안일을 다 하는 것처럼 생색내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찼다. 최 씨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가부장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다수 직장인엄마들은 남편 도움 없이 외롭게 버텨나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32)은 이런 여건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라"고 충고한다. '직장인엄마는 희생의 상징, 괴로운 사람'이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아이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하는 행복한 엄마'라는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

최근 직장 내 유치원이 생겨 육아 부담을 한결 덜었다는 김민경 씨는 "아이와 함께 출근하는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며 "일이나 육아에서 '최고'를 추구하기보다는 '최선'을 추구하는 현명한 직장인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보육시설이 많이 생겨 직장인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최진희 씨는 "요즘 부쩍 자란 아이들이 '엄마처럼 일도 열심히 하고 집안 살림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며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주변에서 조금만 더 직장인엄마에 관심을 가져주고 직장인엄마 자녀를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달 사교육비 1인당 월평균 24만2천원

사교육비 잡아야 출산율 오른다

지난해 지출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원. 소득이 높을수록,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등 '교육 격차'도 컸다. 막대한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수학학원 18만원, 영어학원 38만원, 자기주도학습 캠프비 18만원.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박혜정(40·서울 마포구 염리동) 씨는 지난달 아들의 사교육비로 총 74만원을 지출했다. 방학 때 캠프비를 빼도 이번 학기 중에는 한 달 평균 56만원이 든다. 박 씨는 "그래도 주변의 또래 아이들보다 사교육을 적게 시키는 편"이라며 "주요 과목인 수학과 영어까지 안 시키자니 뒤떨어질까봐 불안해서 학원에 보낸다"고 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월 평균 수입 3백만원으로는 한 아이 사교육비도 감당하기 버거우니 하나만 낳기를 잘했다"는 게 박 씨의 얘기다.

박 씨처럼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둘째를 가지려다 포기하거나 아이를 아예 낳지 않으려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녀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이 학원비, 개인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비 등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1인당 평균 24만2천원. 전국 초중고교 학생 7백42만7천여 명의 사교육비를 합치면 무려 21조6천억원이다. 지난해 서울시 총예산(21조4백69억원)이나 새만금 개발에 2030년까지 20년간 투입될 예산(21조원)을 웃도는 액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여기에 만족하기는커녕 여건이 되면 교육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한다. 투자에 비례해 자녀의 진로가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장 큰 저출산 요인으로 양육비·교육비 부담 꼽아

지난해 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남녀 19세 이상 남녀 1천명에게 저출산 원인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5.7퍼센트가 저출산 원인으로 사교육비, 양육비 등 교육 문제를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목하고, 그중에서도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서 보듯 월 7백만원 고소득층이 월 1백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비해 자녀에게 8.4배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시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24만2천원의 사교육비가 들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동아DB

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사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과열된 교육열과 막대한 비용을 공교육에서 흡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방과후 학교 | 사교육비 절감·교육 기회 격차 줄여

지난해에만 전국 초중고교생의 57.6퍼센트가 참가한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연간 53만원 적게 지출했으며, 이는 2008년 절감효과 41만원보다 29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이나 농산어촌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더 많이 참여해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효과가 검증된 방과후 학교를 올해 더욱 강화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수강료 부담 없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4만명 늘린 39만명에게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와 방학 중에 돌봐주고 학습을 도와주는 초등돌봄교실도 지난해보다 2천 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을 파견하는 농산어촌학교는 이번 새 학기에 6백5개교로 지난해보다 60여 개교가 늘었다.

2009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21조6천여 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사교육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울 전일중학교.

EBS 강의 | EBS만으로 대학 진학할 수 있게

〈외고 합격 프로젝트 다예아빠의 하루 30분〉의 저자인 이정규(50·서울 중랑구 신내동) 씨는 EBS 인터넷강의 덕분에 두 딸의 사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은 경우다. 이 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원 대신 EBS 인터넷강의로 보충학습을 시킨 덕분에 큰딸은 대일외고에 들어갔고, 중학교 3학년인 작은딸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지난해 전체 초중고생의 71퍼센트가 활용한 EBS 강의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EBS 강의를 들은 중학생은 사교육비를 연간 14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19만5천원 적게 지출했으며, 학부모들의 47.1퍼센트가 EBS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EBS는 올해 중·상위권 수험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개편을 단행했다. 학원가에서 소문난 스타 강사들을 추가 영입하고, 우수 교사들을 EBS에 파견해 교재와 강의법을 개발하는가 하면 스마트폰용 수능강의를 개설하는 등 콘텐츠와 기술을 보강해 'EBS만으로 대학에 간다'는 목표에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 학교 교육으로 사교육 수요 충족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 4백57개교는 3년간 평균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80퍼센트로 높이는 게 목표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정부에서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아 정규 수업의 질을 높이고, 방과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등 사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사교육 없는 학교의 프로그램은 학교 특성을 살려 운영한다. 대전 중일고는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충남대 사범대에 의뢰해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충남고의 경우 3백72명의 학생이 교과별, 수준별로 42개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성적뿐 아니라 생활, 진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전일중학교는 1년 목표치를 5개월 만에 달성한 사례다. 방과 후에 수준별 교과 종합반을 운영한 결과 1차 연도 사교육비 절감 목표인 20퍼센트를 뛰어넘는 25.8퍼센트를 달성한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학교의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평가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전국 학교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국가·지자체·기업 힘 모아 아이 낳고 싶은 한국 만들어야"

저출산 관련 개정안 발의한 임영호 의원

저출산은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 과제다. 최근 국회에서 저출산 관련 법안을 의원 발의한 임영호 의원을 만나보았다. 대전 동구가 지역구인 초선(初選)의 임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자유선진당 총재 비서실장,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15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저출산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발의한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저출산 관련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는 평균 2.3퍼센트(2005년)인 반면 한국은 아직 0.4퍼센트(2008년)에 그친다.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라며 저출산의 심각성과 대책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임 의원은 관선, 민선(2, 3기) 대전 동구청장을 지냈다.

임 의원께서 발의한 저출산 관련 법안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5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돼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 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적용하는 추가 공제액을 현행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높여 출산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아DB

국가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는 임영호 의원이 활동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이들 법안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2월 19일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이어 2월 23일 조세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의 결과 정부가 종합검토를 한 후 연말 정기국회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늦은 결혼을 당연시하고, 자녀도 1명만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난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다 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 연령이 높아집니다. 또한 결혼한 취업여성은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합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노동력 부족, 성장동력 상실, 국가경쟁력 약화, 국방인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등이 우려됩니다. 더구나 2020년부터 노인인구는 급증할 것입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끝나야 하는데, 이제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취업여성의 31퍼센트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출산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양육비 지원 등 제도적 인프라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아이 낳고 싶은 세상'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죠. 정부의 역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2020년까지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끝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 아동복지예산의 대폭 확대, 보육시설에 대한 대폭적 지원이 시행돼야 합니다.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하고요.”

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 아동복지예산의 대폭 확대, 보육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시행돼야 합니다. 기업 또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모두 저출산 문제와 아동 복지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과 관심을 갖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간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우선 행복도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국민후생 증진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조세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앞장서 추진해온 점도 꼽을 수 있습니다.

조영철 기자

임영호 의원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경쟁력 약화와 성장동력 상실 등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저출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감이라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늘 국익과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며,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각오 아래 초선으로 처음 국회에 등원해 서민을 위한 정부, 정책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노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소속 당을 초월해 성실하게 일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소위 '입법전쟁'을 통해 국회에서 민의가 내팽개쳐지는 모습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민의는 자명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당리당략을 위한 싸움만 계속하다 보니 국민의 외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경제·민생 법안만큼은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 배려해야 참다운 상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을 때 상대방도 미소를 지어주는 법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요.
국가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국가의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지방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희망의 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주민들과 함께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이상현·지은순 씨 부부와 4남매.

조영철 기자

“형제·자매가 서로 인생 선생님”

다둥이 가족들이 부르는 행복찬가

많은 부모가 아이가 많을수록 육아 부담도 커지겠거니 한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을 많이 낳아 기르는 다둥이 가족들을 만나보니 하나같이 ‘그 반대’라고 입을 모은다. 적게는 넷, 많게는 열셋이나 되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아이들이 많아 오히려 엄마 손이 덜 간다”고 이구동성. 다둥이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을 들여다봤다.

올망졸망 4남매 | **이상현·지은순 부부**

“하나보다 넷인 지금이 훨씬 수월해요”

“우리 집은 그렇게 아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딸 셋에 아들 하나인 이상현(40)·지은순(37) 씨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을 찾았을 때 부인 지 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하기야 1980년대까지만 해도 4남매를 둔 가정은 흔했다. 지 씨도 6남매의 막내로 자랐다. 그래서인지 신혼 때만 해도 아이를 하나만 낳을 생각이었던 지 씨는 첫째 딸 지윤(11)이가 태어나자 마음이 바뀌었다.

“아들을 낳으려고 아이 넷까지 낳은 건 아니에요. 하나는 왠지 외로울 것 같았어요. 어릴 적에 언니 오빠들과 나란히 누워 스무고개를 하곤 했는데, 혼자서는 그런 추억거리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이가 아윤(9)과 예진(6), 승민(4)이다. 큰딸 지윤이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독서광에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 첫째로 태어난 덕에 피아노와 컴퓨터를 배우는 혜택도 누렸다. 다른 세 아이에게 같은 기회를 주지 못해 내심 미안했던 지 씨. 그의 무겁던 마음의 짐을 덜어준 것은 큰딸이었다.

“지윤이가 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더라고요.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전수하면서 동생들도 자판을 익히게 되고…. 동생들 가르치면서 복습하는 셈이라 자기 실력도 좋아졌죠.”

그뿐이 아니다. 책 읽는 지윤이의 모습에 자극을 받았는지 동생들도 책을 즐겨 읽는단다. 아이들이 방 안에 둘러앉아 ‘도서관 놀이’를 하며 노는 모습을 볼 때면 지 씨도 언니 오빠와 놀던 어릴 적 추억에 젖어든다.

“우리 어릴 적에는 다산(多産) 가족이 많았는데도 육아가 힘들다고 하는 엄마는 없었잖아요. 그건 자식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컸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많으면 오히려 엄마 손이 덜 가기 때문일 거예요. 저 역시 아이가 하나일 때보다 지금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아이들은 간식만 잘 챙겨주면 저희끼리 잘 놀고 숙제도 자율적으로 한다. 공부나 숙제를 할 때도 엄마가 아니라 큰언니를 찾는다. 동생들은 “언니가 가르쳐주는 게 훨씬 쉽고 이해도 잘된다”며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지윤이에게 달려간다. 또래 아이들보다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한 지윤이는 그런 동생들의 궁금증을 외면한 적이 없다.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서로 보듬고 양보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광경을 볼 때마다 흐뭇하다는 엄마와 아빠. 순간 ‘하나 더?’ 하는 욕심이 생길 때도 있다.

방송설비 엔지니어인 아버지 이 씨는 “넷으로 끝내겠다는 생각도, 더 낳을 계획도 아직은 없다. 하지만 또 생기면 낳을 것 같다”며 허허 웃었다.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칼퇴근’하는 가정적인 남편 이 씨는 청소와 설거지를 곧잘 도와준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위한 간식도 직접 만든다. 그때마다 아내 지 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친다.

“결혼하길 참 잘했어!”

국내 최다 13남매 | **남상돈·이영미 부부**

“큰 아이들이 동생들 돌보니 가정이 화목”

1970~8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는 어느새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로 바뀌었다. 하지만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다산 가족이 ‘애국자’인 시대가 됐다. 지난해 12월 29일에 태어난 막내까지 모두 열세 명의 자녀를 둔 남상돈(47)·이영미(45) 씨 부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표창감’이다.

이들 부부는 1987년 결혼 후 경한(22), 보라(21), 지나(18), 진한(15), 석우(14), 휘호(13), 세빈(12), 다윗(11), 세미(9), 소라(8), 경우(6), 덕우(3), 영일(생후 2개월) 등 8남5녀를 낳았다. 2006년 KBS 시트콤 〈웃는 얼굴로 돌아보라〉로 연예계에 데뷔한 탤런트 남보라가 바로 이 집 큰딸이다. ‘국내 최다 다둥이 가족’으로 여러 차례 매스컴을 타다 보니 어머니 이 씨가 다산으로 인해 ‘할머니’가 다 됐을 거라고 넘겨짚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몸매가 망가지고 빨리 늙을 거라고 생

조영철 기자

남상돈·이영미 씨 부부는 “아이가 많으면 교육적으로도 좋고 육아 부담도 덜하다”고 강조했다.

각하는 건 순전히 오해예요. 아이를 열셋이나 낳았어도 이렇게 젊고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나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면 젊음과 늘씬한 몸매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씨는 남편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식당을 운영한다. 5년간 하던 식당을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이곳으로 옮긴 건 2008년 10월. 맛깔난 음식 솜씨와 오랜 노하우 덕에 식당은 예나 지금이나 문전성시다.

이 씨는 “맏이가 대여섯 살일 때부터 일을 했다”며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들도 육아 부담이 적지 않은데 일을 하며 13명의 자녀를 둔 이 씨는 오죽하랴. 그런데 그의 대답이 의외다.

“아이가 많아서 오히려 더 편해요. 큰 아이들이 동생들을 돌보며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해주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만 매달리지 않아요. ‘군기반장’인 큰오빠를 중심으로 자기가 할 일은 다들 알아서 척척 하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집안은 늘 아이들로 시끌벅적하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그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다.

“거의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으며 생업을 병행하다 보니 힘든 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와 기쁨이 몇 곱절은 더 커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고 이만한 노후대책이 따로 없지 않나 싶어요. 아이가 많으면 교육적으로 좋고 육아 부담도 더 줄어든다는 사실, 많은 엄마들이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조영철 기자

조병상·임춘자 씨 부부는 아이들이 주변의 어려움을 살피는 넉넉한 마음을 키우기를 바란다.

우애 깊은 7남매 | 조병상·임춘자 부부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다며 칭찬 자자하죠”

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사는 조병상(42)·임춘자(37) 씨 부부는 3남4녀를 뒀다. 주현(12), 혜령(10), 소희(9), 재현(7), 용혁(5), 민호(3), 은성(생후 5개월)이 그들. 이 중에서 네 아이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다섯째 용혁이는 정부가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유아교육비를 받으며 유치원에 다닌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생들을 모아놓고 수건돌리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논다. 누나와 형들이 학교 간 사이에 막내를 돌보는 엄마를 거들며 이 시간을 기다렸던 여섯째 민호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조경업을 하는 아버지 조 씨는 “우리 부부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 결혼 전부터 아이는 되는대로 낳자고 마음먹었다”며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 임 씨가 거들었다.

“작은 아이들이 큰 아이들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며 자라선지 학습 속도도 다들 빠른 편이이에요. 공부도 공부지만 무엇보다 형제자매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일곱 남매를 키우려면 벅차지 않으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외동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아이가 하나면 엄마가 옆에 붙어 앉아 형제도 친구도 돼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집은 밥만 주면 나머지는 저희끼리 알아서 한답니다.”

언뜻 소란스러워 보이지만 아이들의 놀이문화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다. 식사를 마치면 여자아이들은 소꿉놀이, 남자아이들은 딱지치기 팀을 꾸린다. 또 어려운 숙제가 나오면 맏언니가 도와주고, 부부가 집을 비우면 저마다 가사를 분담해 설거지에 청소까지 말끔히 끝낸다. 가족이 전부 바깥나들이를 할 때도 첫째부터 셋째까지 동생들을 하나씩 맡아 챙기기 때문에 부모가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어릴 적부터 더불어 사는 법을 삶 속에서 체득한 아이들은 협동심과 양보심도 남다르다. 이 집 세 딸은 학교에서도 성격 좋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났다. 조 씨 부부는 “학교에서 우리 애들을 모르면 간첩이다”, “우리 집에서는 세 살배기 막내도 혼자 옷 입고 밥 먹는다”고 한마디씩 하며 대견한 듯 아이들

해남군민을 위한 지역행사에 참가한 강동석·전영선 씨 가족.

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교육비 부담이 걱정스러울 법도 한데, 부부가 똑같이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며 느끼는 뿌듯함에 비하면 큰 고민거리가 못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작은 아이들이 큰 아이들 어깨너머로 보고 배우며 자라선지 학습 속도도 다들 빠른 편이에요. 공부도 공부지만 무엇보다 형제자매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들 부부는 지난해 말 구청에서 막내 출산 축하금 1백만원을 받았다. 그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에 썼다"고만 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더불어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만큼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해요."

조 씨는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현장 학습을 간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보고 느끼며 얻게 되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천"이라 믿기 때문이다.

땅끝마을 10남매 | 강동석·전영선 부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우리 가족 행복 열쇠"

"하나둘 낳아 재롱을 지켜봤더니 벌써 열한 번째가 됐네요."

10남매를 둔 덕분에 다둥이네로 유명한 전남 해남군 송지면 강동석(49·어업)·전영선(41) 씨 부부의 열한 번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미(19), 아람(17), 아연(15), 성관(14), 아영(12), 아령(8), 성환(7), 예지(5), 예진(4), 예령(3) 등 2남8녀를 둔 이들 부부의 '진짜 막둥이'다. 주위에서는 "딸보다 아들이면 좋겠다"고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저 막둥이가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나길 바랄 뿐이다. 이제 막 엄마 얼굴을 알아보고 보채는 막내딸 예령이 보살피랴, 새벽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김 양식장에서 김발 관리하랴, 전 씨는 만삭의 몸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곧 얼굴을 보게 될 아기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딸 셋을 내리 낳고 나니 독자로 자란 남편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둘 더 낳다 보니 어느덧 열한 번째가 됐죠."

그럼 열두 번째 아이도 낳을 생각이 있는 걸까? 만삭인 전 씨는 "이제는 그만 낳아야죠"라며 수줍은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들어선 생명을 소중히 키워내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때는 단호한 표정이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10남매나 되다 보니 양육비와 교육비 등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 하지만 새 생명을 기다리는 마음은 20년 전 첫애를 낳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이가 백호의 기운을 받아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이들 부부의 작은 소망이다.

"10남매를 키우느라 허리 펼 짬이 없지만, 아이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특히 새벽부터 일어나 바다에서 온종일 생활하는 우리 부부에게 큰딸 아미와 둘째 아람이는 없어서는 안 될 집안의 기둥이에요."

전 씨는 큰 아이들이 집안일을 나눠 돕는 건 물론이고, 동생들과도 싸우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내는 덕에 해가 갈수록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특히 사교육 한번 받지 않고도 학교에서 늘 1등만 하던 큰딸 아미는 올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모 대학 간호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기쁨까지 안겨줬다. 전 씨는 "취업이 잘되는 간호학과를 선택해 부모를 돕고 싶다는 큰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들 부부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다. 전 씨가 몸이 무거워 그 자랑스런 큰딸의 대학 입학식에 갈 수 없었던 것. 두 사람은 집을 떠나는 딸에게 남들처럼 큰 도시에 나가 옷도 사주고,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게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어둡던 전 씨 얼굴이 이내 환해진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우리 가족에겐 꿈과 희망이 있어요. 가족 덕분에 언제나 행복합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해남=박경우(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아이 셋은 신이 제게 맡긴 보물이죠”

개그우먼 이성미의 3남매 키우기

나이 마흔둘에 셋째를 낳은 개그우먼 이성미 씨. 그에게 아이들이란, 한마디로 “신이 맡긴 보물”이다. 지난해 가을, 7년 동안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평범한 엄마로 살다가 영구 귀국한 그가 ‘세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에 관한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조영철 기자

지난해 귀국하자마자 TBS ‘9595쇼’ 진행자로 방송에 복귀한 이성미 씨.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최정상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2002년 세 아이와 함께 캐나다로 떠났던 개그우먼 이성미(51)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러 방송국을 오가며 바쁘게 활동하던 그 당시, 모든 일을 접고 캐나다행을 결정한 그에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 나중에 복귀하기 힘들다”며 협박 반, 사정 반으로 붙잡았다. 하지만 그의 굳은 결심을 돌려놓진 못했다.

“큰아이 은기(21)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유학 가기를 간절하게 원했어요. 처음에는 은기가 수재도 아니고 유학을 보낼 만큼 넉넉한 형편도 아니어서 단칼에 잘라버렸는데,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 보니 아이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혼자 보내는 건 내키지 않아 두 딸도 데리고 갔죠.”

큰아들을 먼저 보낸 후 은비(13)와 은별(9), 두 딸과 함께 뒤따라간 그는 언제 한국으로 돌아올지,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할지 아무런 계획도 미리 세워두지 않았다. 그저 캐나다에서는 일하는 바쁜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평범한 엄마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자녀에게 헌신하는 평범한 엄마로 산 7년

결심한 대로 그의 하루는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쓰였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교회에 다녀오면 아침 7시. 그때부터 아침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준 뒤 집안 청소와 간식 준비까지 마치면 오전 시간이 후딱 지나갔다. 점심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이들 도시락을 학교로 날랐다.

“제가 어린 시절 엄마 없이 외롭게 자란 탓에, 엄마가 학교로 오는 아이들이 참 부러웠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원 없이 아이들 학교를 가봤어요. 아이들도 그때마다 무척 좋아했고요.”

또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오면 오후 3시. 아이들에게 간식 챙겨주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 매일 규칙적인 생활이 반복되는 일상이 따분하진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내저었다.

“세 아이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지만 그거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행복이었어요. 제법 엄마 노릇을 하는 것 같아 뿌

어느 날 큰아이가 학교에서 사소한 다툼을 벌였어요. 알고 보니 원인이 제게 있더군요. 며칠 뒤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개그우먼 이성미의 아들'로 커주길 바랐던 제 욕심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 후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자가 되었죠.

듯하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를 때 바로 대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랑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에서 그는 엄마이기 이전에 얼굴이 명함인 유명인이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서도 남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확실히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다. 세 아이 모두 그에게 "엄마가 변했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였다.

먼저 한국에서 아침마다 언성을 높여가며 아이들을 깨우던 습관부터 버렸다. 누워 있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귀에다 대고 "좋은 아침이야" 하고 속삭였다. 놀랍게도 큰소리를 칠 때보다 유연한 방법이 한결 효과적이었다.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인사 잘하는 아이, 인간다운 면모를 가진 사람이 더 훌륭하다"며 평소 아이들에게 강조해온 교육관도 마음껏 실행에 옮겼다. '숙제 해라', '공부해라', '말썽 피우지 마라' 식의 일방적인 지시는 되도록이면 삼갔다. 여행 갈 행선지를 정하는 사소한 문제를 놓고도 아이들에게 먼저 의견을 구했다. 이처럼 그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게 된 데는 큰아들 은기의 영향이 컸다.

"캐나다에서 지내는 동안 은기가 학교에서 사소한 다툼을 벌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원인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한테 폐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제 딴에는 많이 참고 억누르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폭발한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나름대로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개그우먼 이성미의 자식'으로 키우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은기는 "당장 나가라"고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던 예상과 달리 엄마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아해했다. 그러고 며칠 후 엄마가 보인 뜻밖의 행동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어요. '엄마가 너를 이성미의 아들로 커주길 바랐던 것 같다. 그게 너를 많이 힘들게 했구나. 엄마를 용서해다오' 하고요."

이후 변한 것은 이 씨만이 아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으며 엄마와 하루가 멀다고 다투던 은기는 엄마와 동생들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듬직한 아들로 새롭게 태어났다.

어느덧 대학생이 된 은기는 미국에서 독립해서 살고 있다. 자식들에게 "스무 살이 넘으면 해줄 것이 없으니 독립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온 엄마의 말에 은기도 공감한 것이다. 하지만 이 씨는 아들을 떼어놓고 귀국해야 했을 땐 잠시 마음이 약해졌다.

"남편이 일 년에 두 번씩 손님처럼 왔다가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내버려둘 수도 없었고요. 막상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니 은기를 그냥 데려갈까 하는 유혹도 느꼈지만, 무엇이 아이를 위한 길인지 알기에 마음을 고쳐먹었죠."

"아이들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은기와 헤어지는 아쉬움을 이들 가족은 오붓한 이별 여행으로 대신했다. 그 여행은 낯선 땅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였던 가족 간의 정이 얼마나 크고 두터운지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얼마 전 두 딸은 은기가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가슴을 졸였다. "편지를 열어보면 오빠가 너무 보고 싶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도저히 뜯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딸들에게는 "오빠에게 답장 써야지" 하고 담담하게 대꾸했지만 실은 그도 은기의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다.

7년여 만에 방송에 복귀했지만 이 씨는 여전히 '연예계 최고 동안(童顔)'을 유지하고 있다. 돌아오자마자 성우 안지환과 함께 TBS '9595쇼'의 진행을 맡으며 성공적인 방송 신고식을 치렀다. '9595쇼'는 그가 캐나다로 떠나기 전 탤런트 김성환과 10여 년간 진행한 프로그램. 앞으로 방송을 통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국민파스'가 되고 싶다"는 그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단절된 가족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명품 옷도, 좋은 집도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에요. 평범한 엄마로 살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함께할 수 있는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G

글 · 김지영 기자

프랑스는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생후 3개월부터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저렴한 가격에 돌봐주는 크라시(어린이집)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의 크라시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아빠도 30일 출산휴가 가족수당 30가지

프랑스 · 스웨덴의 저출산 탈출기

상당수 선진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아기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찬 두 나라가 있다. '남녀평등 가족정책'을 내세운 스웨덴과 '다양한 가족수당 정책'을 내건 프랑스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한때 출산율이 1명에 가까운 저출산 국가였다. 두 출산 우등국에게서 저출산 극복 노하우를 알아봤다.

스웨덴 | 육아 제도 리모델링… 남녀평등 정책 효과

'직장인엄마들의 천국'. 스웨덴의 또 다른 이름이다. 현재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은 80퍼센트 이상.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스웨덴은 이처럼 여성 취업률이 높은데도 2007년 출산율이 1.85명을 기록했다.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1.3명대에 머무르는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준.

일하는 여성들이 많은 스웨덴이 이토록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남녀평등 실현'을 핵심으로 한 저출산 대책 덕분이다. 스웨덴은 1921년 여성 투표권이 확립된 이래 여성 자립을 적극 지원했다.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적극 존중하기 위해선 남녀 모두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정책이 필요했다.

스웨덴은 아동 양육과 같은 '가족 내 돌봄 노동(Care Work)'이 일가족 양립의 1차적 장애요인이란 것을 깨닫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육아휴직 제도다. 1974년 도입된 육아휴직 제도는 부부가 반반씩 나눠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그러다 1995년 육아휴직 제도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을 30일로 의무화한 것. 이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양육의 책임을 지운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02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의 4백50일에서 4백80일로 늘리고, 부부는 1백20일 중 절반인 60일을 각각 나눠쓰고,

나머지 3백60일은 한 사람이 몰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동안 가계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휴직급여도 지원한다. 1998년부터 소득의 80퍼센트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것. 지난해부터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을 늘리기 위해 부모가 절반씩 육아휴직을 쓰면 총 1만3천5백 크로나(약 2백15만원)까지 세금감면을 돕는 경제적 혜택도 부여한다.

현재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출생 60일 전부터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출생 60일 이전 임신부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50일간의 임신출산 휴가도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병간호 휴가, 아버지 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가 마련돼 있다. 병간호 휴가는 자녀(12세 이하)가 아파 가정에서 돌봐야 할 때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백20일까지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 대신 제3자가 이들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아버지 휴가는 아이를 출산했거나 입양했을 때 10일간 쓸 수 있다. 이 역시 특정한 경우 아버지 대신 제3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급여는 소득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부연구위원은 "스웨덴의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을 토대로 한다. 특히 남성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 복지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남녀가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양육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DB

스웨덴은 남녀가 평등하게 보육 분담을 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마련했다. 사진은 '직장인엄마들의 천국'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의 울릭스달 유아학교.

"스웨덴의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을 토대로 한다. 특히 남성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 복지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남녀가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양육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다"

프랑스 | 임신부터 양육까지 단계적 지원… '셋째 낳기 붐'

프랑스도 과감한 저출산 대책으로 문제 해결에 성공한 케이스. 1993년 1.66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던 프랑스의 출산율은 2008년 2.02명으로 크게 올라섰다. 이는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수당제도 덕분이었다.

프랑스는 200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8퍼센트를 가족지원 정책으로 사용했다. 저출산 대책에 GDP의 0.4퍼센트를 쓰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신윤정 위원은 "프랑스 저출산 대책의 최대 장점은 30가지 정도의 다양한 가족 관련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돼 이후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지급된다. 친자녀뿐 아니라 입양자녀, 또는 프랑스에 거주하지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가족수당의 면면을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출생·입양 특별수당으로는 임신 7개월까지 8백55유로(약 1백34만원)를 받는다. 다태(多胎) 임신일 경우 태어날 아이의 수에 이 액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양을 했거나 입양이 예정된 아이가 있다면 1천7백10유로(약 2백60만원)를 받게 된다.

2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에 일정액이 추가된다. 자녀가 2명이면 약 19만원, 3명이면 약 42만을 더 준다. 또 자녀들이 11세 이상이면 약 5만원, 16세 이상이면 약 9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둘 경우 가족보조금이라는 특별수당도 나온다. 신 위원은 "최소 세 아이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휴가비, 이사비, 주택보조금 등 다양한 특별수당 때문에 프랑스에 셋째 아이 낳기 열풍이 불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육아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직장을 가진 엄마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다. 생후 3개월부터 3세 미만의 아이들은 공동 육아시설 '크라시(어린이집)'에서 맡아준다. 크라시는 공립 크라시, 부모들의 협조로 꾸리는 자발적 크라시, 사립 크라시 등으로 나뉘는데 공사립 모두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정의 보육비 부담은 낮은 편이다. 또한 3~5세 아이들은 1백 퍼센트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에 다닌다.

신 위원은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편적인 국공립 보육시설과 양육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보육 서비스에 힘입은 바 크다"며 "우리도 이런 보육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들이 양육의 책임과 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데다 근로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 남성들이 양육을 맡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에서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일과 가족의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한 정책적 시도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악성코드 철통차단 '캐슬' '휘슬' 다운받으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웹페이지 보안 강화 프로그램 서비스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커다란 피해를 가져오는 적, 해커를 막아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커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치권 웹페이지 해킹 방지에 나선 것이다.

#1 "1백80센티미터 이하 루저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얼마 전 홍익대의 인터넷 입시정보 상담 게시판에 이러한 공지가 올라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학 입시철을 맞아 예비 대학생들이 입시정보 사이트를 찾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상담 게시판에 누군가 해킹으로 '루저 지원 불가'란 내용의 허위 공지를 올린 것. 경위를 모른 채 공지를 접한 예비 대학생들은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올랐고, 홍익대는 예비 대학생들에게는 물론 대외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곤욕을 치렀다.

#2 2008년 4월, 한 해커가 당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던 버락 오바마의 웹사이트를 공격해 이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웹사이트로 옮겨가도록 만들었다. 이 사건은 미국 정치권에서 '자칫 선거의 판도까지 바꿀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인식됐다. 막강한 정보통신 선진국임을 자랑하는 미국도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선 예외가 아니었다.

#3 2008년 6월 어느 날 국내 모 정당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웹사이트 전체가 해킹당해 고양이 사진으로 도배돼 있었던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정당이나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비난 댓글 수준을 넘어 해킹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동아DB

지난해 7월 DDos 공격 당시 파괴된 하드디스크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관들이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이나 국회의원 웹사이트 해킹은 고난도의 보안장비를 뚫거나 고급 정보를 빼내가겠다는 의도보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 등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005년부터 올 1월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홈페이지 해킹 피해 사례가 총 1백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내 악성코드 삽입이 99건, 홈페이지 변조가 9건이었다.

정치인에 대한 해킹은 이미지 왜곡이나 마타도어(Matador·흑색선전), 음해공작,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을 퍼뜨려 해당 정치인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정치생명을 끊어버리려는 의도가 개입된다.

정치인에 대한 해킹 가운데 가장 심각한 피해는 악성코드 이식에서 비롯된다. 악성코드가 숨겨진 정치인이나 정당의 홈페이지를 해당 정치인이나 정당 지지자들이 방문하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개인용 컴퓨터(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좀비 PC'로 활용되는 것이다.

KISA가 그동안 좀비 PC로 사용된 컴퓨터의 악성코드 주요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악성코드를 은닉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보안에 취약한 사용자가 방문하면서 자동으로 감염된 경우가 전체 사유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서 무료 다운로드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는 지난해 7월 7일 발생한 디도스(DDoS) 공격의 주범이었다. DDoS 공격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수십만 대의 좀비 PC를 활용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건수를 비정상적으로 늘려 해당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공격으로, 지난해 약 일주일가량 청와대, 국방부 등 국내 정부 부처와 은행 등은 물론 미국 국무부 등 미국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26개 주요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동시에 마비시킴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공격은 국내 주요 부처의 행정 업무를 일정시간 마비시키는 악영향을 끼쳤으며, 어떤 테러보다도 강력한 피해를 일으켰다. 이 사건을 통해 일반인의 컴퓨터가 자기도 모르게 악성코드

동아DB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방지에 나선다. 지난해 DDoS 공격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뿐 아니라 LG데이콤 통합관제센터(사진)와 같은 민간 해킹 감시기구들도 해킹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에 감염돼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인터넷상 선거 활동에 제약을 가져오는 정치권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KISA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의원이나 정당 등 정치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필요한 보안기술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KISA가 정치권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구축, 취약점 점검 등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 홈페이지의 경우 보안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인PC 감염 'DDoS' 사태 등 예방할 수 있어

또한 하나의 서버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정치권 홈페이지가 동시에 운영되는 가상 호스팅을 이용하는 경우 보안에 취약한 한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면 같은 서버를 사용하는 홈페이지들이 연쇄적으로 변조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콘텐츠에만 중점을 둔 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KISA는 분석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국회 사무처가 운영하는 서버들은 전문 보안업체의 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회 사무처는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국회 내부 서버로 이전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회의원실에서는 편의상 여전히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KISA는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와 보안전문가 컨설팅, 악성코드 은닉사이트 탐지시스템(MC Finder) 운영 등을 통해 정치권 홈페이지의 악성코드 은닉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홈페이지 변조를 막기 위한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도구 '캐슬(CASTLE)', 해킹을 탐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휘슬(WHISTL)' 등 새 보안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KISA의 보안프로그램 캐슬은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해커의 공격을 차단하고, 휘슬은 이미 홈페이지 내에 침투한 해커의 공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KISA 상황관제팀 신대규 팀장은 "KISA의 해킹 방지용 보안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앞으로 정치권 홈페이지에 대한 해커의 공격과 그에 따른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 팀장은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보안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보안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성숙한 보안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ISA는 118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 지원 등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G

글 · 문상훈 객원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18 kisa.or.kr

스마트폰 안전하게 사용하기 10계명

열 받지 않게 열 개만 기억하자

'스마트폰을 사수하라.'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보안 위협 가능성도 커졌다. 위피(WIPI · 대한민국 표준 모바일 플랫폼) 의무 탑재 조항 해제, 개방형 플랫폼 국내 도입 등으로 다양한 해외 모바일 악성코드가 침투하고 있는 것.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정보 유출, 데이터 변조, 기기 오작동,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커에게 조종되거나 공격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해외 스마트폰 대상 악성코드는 지난해 6월까지 5백24종이 발견됐으나 최근까지는 보고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대응체계가 취약하다.

스마트폰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스마트폰 정보 보호 및 민관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2월 8일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을 발표했다.

합동대응반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통통신 3사(KT, SK텔레콤, LG텔레콤), 제조 3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백신 6사(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바이러스체이서, 이스트소프트, 잉카인터넷, NHN) 등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10대 안전수칙은 오른쪽 상자기사와 같다. G

글 · 유재영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Tel **118**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안전수칙 10

1 의심스러운 어플리케이션 내려받지 않기 스마트폰용 악성코드는 위·변조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

2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 금지 의심스럽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정상 프로그램으로 가장한 악성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설치될 수 있다. 특히 성인 도박 및 각종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가 위험하다.

3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 멀티미디어 메시지와 e메일은 첨부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악성 코드를 유포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해커들은 게임이나 공짜 경품 지급 등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사용자를 현혹하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한다.

4 비밀번호 설정·정기 비밀번호 변경 단말기 분실 혹은 도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유추하기 쉬운 번호(예 : 1111, 1234, 2580 혹은 자신의 생년월일)는 피한다.

5 무선 인터페이스 사용 때만 'ON' 지금까지 국외에서 발생한 스마트폰 악성코드의 상당수가 무선 인터페이스의 일종인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꺼놓는 게 좋다.

6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웹사이트 접속 또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스마트폰이 오작동하거나, 바탕화면 변조 및 저장 개인 정보가 삭제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스마트폰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단말기를 진단하고 치료한다.

7 내려받은 파일 바이러스 유무 검사한 후 사용 악성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특정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숨겨져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고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 동기화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과 PC 간 데이터 백업 및 복사, 음악파일 전송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PC에 숨어 있는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질 수 있다.

9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 임의변경 금지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를 변경해 사용하면 기본 보안 기능 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10 운영체계 및 백신 프로그램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해커들은 스마트폰 플랫폼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백신 프로그램 탐지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 기법을 구사한다. 그러므로 사용 운영체계 및 백신 프로그램을 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사용한다.

지금은 방송 중? 수사 중?

검찰 인터넷방송(SPBS) 앵커 추의정 검사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 살짝 수줍은 듯 음료수를 권하는데, 순간 여기가 어디인지 어질어질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검찰청. 정면에는 잠시 혼란을 준 '스타 여검사'가 앉아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추의정 검사(34·사시 45회)다. 지난해 7월 검찰 인터넷방송(SPBS) 메인앵커로 발탁돼 빼어난 미모와 진행 실력을 보여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검사가 방송 앵커에 도전하다니.

"새로운 일을 해보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던 차에 주변에서 '목소리가 방송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죠."

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다. 그저 원고만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제 모습을 화면으로 보니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뉴스를 할 때 손을 자꾸 주무르는 것도 보이고….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전달해야 하는데 영 어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가득한 검찰 소식을 전하다 보니 발음도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중에서도 '피의자'의 '의'자가 계속 반복되는 뉴스라도 걸리면 복식호흡으로 다듬은 '옥구슬' 같은 목소리도 별 무효과였다고 한다.

"국민과 부드럽게 소통하려는 검찰 의지 알아줬으면"

방송이 끝나면 다시 특수검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다. 형사 사건은 대개 수사 기간도 길고 강도도 세다. 최근 몇 달간은 주말 빼고 일주일 내내 자정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 네 살 난 딸의 얼굴을 못 본 지도 벌써 나흘째.

"주중엔 아예 친정에 아이를 맡겨요. 한창 예쁠 때인데…. 지난해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입원했을 땐 정말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건지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일에서 보람을 찾으며 마음을 다잡아왔다. 지난해엔 친아버지에게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13살 여자 초등학생 사건을 해결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세상의 무서움도 절감했다.

"피해 어린이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마음속 응어리를 털어버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선 보람이 큽니다."

조영철 기자

뉴스 원고에 두꺼운 수사 기록까지,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는 추의정 검사. 밤샘 수사로 수척해 보였지만 카메라 앞에선 당당한 포즈를 취했다.

추 검사는 검찰방송을 통해 국민과 부드럽게 소통하려는 검찰의 이미지가 잘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그 마음을 아는지 일반인들의 격려편지를 자주 받는다고 한다.

"감사하죠. 재소자께서 격려편지를 보내준 적도 있어요. 그 뒤로는 수사를 할 때도 피의자에 대한 작은 배려를 소중히 여기게 되더군요."

전날 밤샘 수사를 하느라 머리도 제대로 못 빗고 화장도 못했다는 추 앵커, 아니 추 검사. 지금 그의 한 손엔 방송 분장을 위한 파운데이션이, 또 한 손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수사 기록이 함께 쥐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G

글 · 유재영 기자

검찰 인터넷방송 tv.spo.go.kr

황사의 계절 마스크 · 손씻기 잊지 마세요

햇볕 좋은 봄철에 큰 일교차, 건조한 대기와 함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황사(黃砂)다. 이 누런 모래먼지는 중국 북부와 몽골의 사막, 황토지대에서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든다.

황사가 몸에 나쁜 것은 그저 색이 누렇기 때문이 아니다. 말초기관에까지 영향을 끼칠 만큼 작은 먼지 입자(1~10마이크로미터)와 황사 속에 포함된 아황산가스, 규소, 카드뮴, 납, 알루미늄, 구리 등 중금속이 문제다. 이들은 호흡기 질환과 눈병, 피부 질환을 유발하며 천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자들에게는 치명적(사망률 5퍼센트)일 수도 있다.

미세한 먼지와 중금속 물질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신체기관은 기관지. 이들은 기관지 내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섬모를 민감하게 하며 기관지 자체를 좁아지게 한다. 과도한 기침은 이물질을 뱉어내기 위한 인체의 자동반사다.

황사는 실제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을 유발하기도 한다. 기관지가 원래부터 과민해 천식성이 있는 환자는 황사가 몸에 들어오면 기관지가 더욱 좁아지다 아예 들러붙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관지가 황사로 말미암아 유착되면 발작적인 마른기침을 하게 되고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가슴이 답답하고 죄어오는 듯한데, 이때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숨을 못 쉬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평소 매운 냄새와 담배 연기, 차가운 기운 등에 곧잘 기침을 하는 기관지 민감성 환자들은 황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황사를 들이마신 후 숨이 차고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난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3, 4월에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고, 아직 신종플루의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황사 예보가 나오면 기관지 민감성 환자나 천식 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일반인들도 마스크를 끼는 게 좋다.

마스크는 가급적 미세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황사 방지용 특수 마스크를 쓰고, 외출 후에는 바로 세수와 양치를 해야 한다. 황사가 있는 동안에는 되도록 창문을 열지 말고, 필요하다면 공기정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가습기 등을 이용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실내 습도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황사 예보 있을 땐 피부보호도 챙겨야

황사에 포함된 중금속이 눈에 들어가면 각결막상피세포를 손상시켜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자극성 결막염 등을 일으킨다.

결막염의 주된 증상은 많은 눈물, 충혈, 눈의 이물감 등. 알레르기성의 경우는 특히 눈이 가렵고 눈을 비비면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며 증세가 심하면 흰자위가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예방책은 외출을 삼가는 것.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보호안경을 끼고 귀가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결막염 초기 증세가 의심되면 깨끗한 찬물에 눈을 대고 깜빡거리거나 얼음찜질을 해주면 일시적으로 증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결막염이 심하면 염증 억제 치료와 알레르기 치료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피부 보호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황사에 노출되면 피부세포가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므로 황사 예보가 있으면 몸 구석구석을 옷이나 천으로 가리는 게 좋다. 일단 염증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G

글 · 최영철(주간동아 기자)

공기업 감사, 1조5천억짜리 '일' 냈다

인도네시아와 화력발전소 MOU 체결… 한국동서발전 이정원 감사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때우다 나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해서일까. 공기업 감사는 여전히 대표적인 '낙하산 요직'으로 손꼽힌다. 한국동서발전 이정원(57) 감사는 이런 통념을 깨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정원 감사는 지난 2월 18일 인도네시아 최대 에너지그룹인 바크리 파워사와 화력발전소 공동 개발 및 운영, 기술자문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한국동서발전이 칼리만탄(보르네오) 섬 동부 상가타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30년 동안 관리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총예산이 약 5천2백억원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용은 무척 알차다. 앞으로 연간 5백억원씩 30년간 총 1조5천억원의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설계부터 건설까지 모든 공사와 30년 동안 운영과 보수 등을 대부분 우리 기업에 맡길 예정이어서 국가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번 MOU 체결에는 이정원 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그의 탄탄한 인도네시아 인맥이 한몫했다. 그와 인도네시아의 인연은 6년 전 현지 옥수수밭 투자에서 시작됐다. 그의 옥수수밭은 큰 이익을 남겨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우수 농장으로 선정할 정도였다. 이번 사업을 알게 된 것도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지인들을 통해서였다고 한다.

"제가 보기에 사업성이 충분했습니다. 발전소 건설 부지가 탄광 가까이에 있어 컨테이너벨트만 연결하면 석탄을 발전소까지 운송하는 게 가능해 생산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으니까요. 한국전력에서 해외투자를 할 때 이익률을 10~15퍼센트로 보는데, 이 사업은 30퍼센트 이상이었습니다."

조영철 기자

이정원 감사는 끈질긴 집념과 인맥으로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 건설 MOU를 체결했다.

현지 옥수수농장 투자 경험 발판… 월권 될까 주저하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주사업에 뛰어들기에 앞서 잠시 갈등을 했다고 한다.

"월권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감사의 본분은 경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감시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길구 한국동서발전 사장에게 의견을 물으니 '회사를 위하는 일일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일인데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무슨 상관이냐'며 적극 추진하라고 격려하시더군요."

어려움도 많았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큰 위기도 찾아왔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기술과 인력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발전소 허가조항에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규정이 미미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인도네시아 허가 기준에 맞춰 건설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인도네시아 환경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것이 바크리 파워의 믿음을 산 것 같아요."

한국동서발전과 바크리 파워는 오는 6월경에 좀 더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담은 중간계약서(JDA)를 체결하고, 9월 중에는 현지법인을 세울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설계와 토목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에게 앞으로도 계속 사업 수주를 위해 뛸 것이냐고 묻자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저는 이번 수주보다도 우리 회사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비리나 문제점을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것을 더 큰 보람으로 여깁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회사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G

글 · 최호열(동아일보 전략기획팀 기자)

직장 상사 때문에… 몰리는 업무 부담 때문에…

"끙끙 앓지 마세요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일을 하다 보면 상사와의 불협화음, 업무 실적의 압박, 이로 인한 가정불화 등 갖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겨난다. 누구에게나 있는 직장 스트레스이겠거니 그냥 넘기다 보면 우울증이나 강박증 같은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도 한다. 한국EAP협회 상담사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충고한다.

한국EAP협회 차하나, 이영실, 김숙향, 우현미 상담사(왼쪽부터)는 "직장 스트레스 상담은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란 선입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생활 15년차의 대기업 과장 A씨.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무렵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지원 상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상담이나 받아보자'는 심정으로 신청했다.

그는 상담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객관적으로 알게 됐다. 또한 일과 사람의 문제를 차츰 분리해서 받아들이게 됐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상사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게 된 A씨는 일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했다. 그 결과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국EAP협회가 기업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한 상담 서비스의 한 사례다. 한국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근로자 지원 상담)협회는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는 사회적 기업이다.

근로복지공단에 EAP 온라인 상담 도입… 만족도 높아

미국, 일본 등의 산업계에선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서비스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외국계 기업과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알려지고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EAP 온라인 상담을 도입했다. 상담을 받은 공단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 오는 3월부터는 면대면 상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EAP협회의 상담 서비스는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담 외에도 컨설팅,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주민 2백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고, 2009년 노사분규 사태를 겪은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실직 근로자 7백여 명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무려 2천3백16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1천7백68시간보다 5백 시간 정도가 많다(2009년 OECD 통계연보 기준). 다른 나라에 비해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조직 우선'을 강조하는 한국적 기업문화가 겹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받는 직장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편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상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54.6퍼센트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거나 탈모, 성인 여드름 등 스트레스성 질환을 겪었다는 경우도 있었고 극소수지만 자살충동까지 느꼈다는 사람도 있다. 해소되지 못하고 쌓여가는 직장 스트레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EAP협회에서 만난 전문 상담사인 김숙향, 우현미, 이영실, 차하나 씨는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자리 잡는 데 있어 "상담은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무능한 사람이 찾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직장 스트레스 방치 금물… 상담부터 받아야"

우현미 상담사는 "상담하러 오는 직장인 대부분은 자기 개발과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적극 모색하는 사람들"이라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회사가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인 반면, 40대 중반 이상 직장인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 선뜻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상담사는 "40대 중반 이상 연령대의 직장인들이야말로 중간 관리자로서의 스트레스도 심하고 오랫동안 혼자 문제를 쌓아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상담사들은 직장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꼽는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기질에 맞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갈등, 경쟁시대에 회사가 원하는 많은 양의 업무를 맡다 보니 가정을 소홀히 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 상사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려움 등이다.

20대 직장인들의 경우 대체로 직업이 자신과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의구심, 자기개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에 상담을 신청한다. 이들에게는 심리·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도록 도와준다.

이영실 상담사는 "직장에서 보람을 찾지 못해 스트레스가 심했던 한 20대 후반 여성은 적성 검사를 통해 자신이 글쓰기에 소질과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글 쓰는 일과 관련해 자신을 개발한다는 방향과 목표를 갖게 되면서 활기를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30대 중반 직장인들에게는 가족 문제와 부부갈등, 상사 및 부하 직원과의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과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조언해준다.

김숙향 상담사는 이렇듯 "'일' 자체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는 상사 때문에 또는 옆 사람 때문에 못살겠다는 불만이 쌓인 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준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면 답은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게 그의 믿음이다.

자녀교육을 둘러싸고 부부갈등이 많은 40대 직장인들에게는 자녀, 배우자가 함께하는 가족상담도 이뤄진다.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들도 평균수명이 길어진 시대에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직업 흥미 및 적성 검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한다. 한국EAP협회 상담사들은 직장에서의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를 방치할 경우 가정과 사회로 상처가 옮아갈 수밖에 없다며 직장 일로 힘들다면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권했다.

"최근에는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물리적인 사고로 입은 상해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생기는 질병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조직문화를 개선해서 직원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상담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고 생산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변화가 건강한 가족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겁니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직장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가 진단표 (한국EAP협회 제공)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0	1	2	3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을 갖고 있음	0	1	2	3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0	1	2	3
4 피곤감이 들고 기력이 저하됨	0	1	2	3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0	1	2	3
6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이 불행하게 됐다는 느낌이 생겨남	0	1	2	3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0	1	2	3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0	1	2	3
9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면에서든 자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이 생겨남	0	1	2	3

〈결과〉
1~4점 | 증상 없음
5~9점 | 지속적으로 주의 관찰 요망
10~14점 | 치료계획을 세우고 상담이나 약물치료 고려
15점 이상 | 즉시 약물치료나 상담치료 필요

인문계 대졸자 기술교육비 80% 지원

인문계 대졸자 직업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난해 인문계 대졸자의 취업률은 68.6퍼센트로, 공학계 77.7퍼센트와 자연계 73.7퍼센트에 비해 낮다. 그나마 취업자 중 약 절반(49.8퍼센트)은 임시직이나 시간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업기간이 길어져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3월까지 올해 대졸자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인문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수요를 조사해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4월부터 고용지원센터와 대학 취업지원실 등을 통해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훈련 참여자에게는 훈련비용(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20퍼센트 자비 부담)과 훈련기간 동안 월 11만6천원의 교통비, 식비가 지원된다. 또 생계 부담을 덜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연리 1퍼센트로 월 1백만원, 최대 6백만원의 생계비 대출도 해준다. 훈련 수료 후에는 우수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며,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할 때는 최대 1백80만원의 취업장려수당도 제공한다.

많은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이 마련된다. 우선 1만3천6백68개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이 활용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정부가 지정한 훈련과정 중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해 수강할 때 연 2백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훈련 직종은 디자인, 방송, 경영, 정보통신 등 다양하다.

연 200만원 한도… 최대 600만원 생계비 대출도

또 전국 폴리텍대학(38개 캠퍼스)에는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특별훈련과정(6개월)을 운영한다. 우선 폴리텍대학에 이미 편성돼 있는 기능사 야간과정 예산을 활용해 실내건축, 컴퓨터 출판디자인, 웹프로그래밍 등 9개 직종의 훈련을 실시한다. 정부는 훈련 희망직종과 지역 분포를 고려해 상반기 중에 캠퍼스별로 특별훈련과정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채용예정자훈련과 연계해 채용예정자훈련생 모집 시 직업훈련 희망자를 우선 연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채용예정자훈련은 중소기업이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기로 약정한 후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하면 훈련비 및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김영사 등 출판업종 중소기업 30개사는 편집자 및 마케터 신규 채용 약정 후 (사)출판인회의에 훈련을 위탁하여 훈련 수료생 41명을 전원 채용했다.

조영철 기자

오는 4월부터 미취업 인문계 대졸자는 국가 보조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생들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자동차 정비교육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도 연계해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에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를 적극 연결하고, 인턴 참여 중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개발과 연계한 인턴제 및 청년 창업·창직 인턴제에 훈련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훈련 참여와 취업 성공을 높이기 위해 훈련 중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전담 훈련상담원과 대학 취업지원실의 취업지원관이 훈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또 훈련이 끝난 후에는 워크넷에 등록된 우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한다. 2008년 청년층(15~29세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률은 평균 80.1퍼센트였다. G

글 · 이혜련 기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www.hrd.go.kr

전국 최강의 싸움소들이 3월 청도로 집결해 화끈한 힘겨루기를 벌인다.

牛~ 청도 소싸움 구경 가자

"됐나?" "됐다!" 카랑카랑한 경상도 사투리가 튀어나오기 무섭게 육중한 울림과 충격음이 지축을 흔든다. "우(牛)~우~" 우직한 소들이 화끈한 한 판 힘겨루기를 벌이는 소리다.

3월이면 경북 청도는 싸움소들의 향연으로 후끈 달아오른다. 농부들의 여가 즐기기로 시작된 소싸움은 1990년부터 영남 소싸움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3월 1일 열리다가 1999년 청도에서 관광축제이자 전국 규모 대회로 판이 커졌다. 올해도 3월 17~21일 청도 상설 소싸움경기장에서 뜨거운 승부가 펼쳐진다.

1톤에 육박하는 육중한 몸집의 소들이 예리한 뿔을 이용해 보여주는 기술은 단연 최고의 볼거리. 하지만 소들이 그저 머리만 맞대고 승부를 내는 것은 아니다. 밀치기, 목치기, 머리치기, 배지기, 뿔걸이, 뿔치기, 들치기 등 싸움 기술만도 10여 가지에 달한다. 그래서 씨름 기술과 비교해가며 보는 것도 소싸움의 묘미 중 하나.

3월 17일부터 닷새간… 각종 공연 등 볼거리 풍성

올해 대회에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싸움소 1백32마리가 출전해 토너먼트 식으로 승부를 겨룬다. 총 6체급(갑, 을, 병에서 각각 '특급'과 '일반'으로 체급을 나눈다)에서 우승 소를 가린다.

청도군청 문화관광과 안주봉 계장은 "현재 전국에 5백~6백마리 정도의 싸움소들이 있는데, 청도 대회는 그중에서도 지난해 각종 지역대회에서 8강 이상에 오른 강자들이 출전하는 전국 최고의 소싸움 대회"라며 "싸움소들의 근육이나 동작이 일반 소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고 말했다.

소싸움에 출전하는 소들은 씨름 선수들처럼 타이어도 끌고, 달리기 운동도 해 근육이 발달하고 수명도 길다고 한다. 10~15년을 살고 1억원을 호가하는 싸움소도 있다. 대체로 5~8년산 싸움소들이 절정의 기량을 보여준다고 한다.

소싸움 중간 중간에는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 첫날엔 아카펠라, 비보이 댄스, 저글링 공연이 열리고 대회 기간 내내 차력쇼, 스포츠댄스, 밸리댄스, 마술쇼 등 풍성한 볼거리가 이어진다. 정수라 등 가수들의 특별공연도 펼쳐진다.

경기장 바깥에서는 청소년 체험 학습을 위해 소의 여물을 만들고 먹여보는 전통우사 체험장을 비롯해 로데오, 초가집 만들기 체험장 등도 마련됐다. 또한 소를 주제로 한 조각, 동양화, 서양화 등을 전시하는 전국 소사랑 작품전도 열리고, 1960~70년대의 풍물, 재래시장도 되살려진다. 경기장 입장료는 일반 4천원, 학생 3천원. 예매가 가능하며 대회 기간 중에는 현장에서도 표를 구입할 수 있다. G

글 · 유재영 기자

청도군청 문화관광과 Tel 054-370-2376

청도 '와인터널'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연인들이 꼭 한 번 가봐야 할 필수 코스. 1백10여 년 전 대한제국 때 완공된 구 남성현터널이 감와인 숙성저장고로 변신한 것. 벽면이 자연석으로 만들어져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터널 중 하나로 꼽히는데, 여기에다 청도에서만 나오는 감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추억이 될 듯.

"살아있는 우리 강산…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지' 선정

푸른 하늘 아래 잔잔히 흐르는 물길을 가르자 저 멀리 두루미 떼가 한눈에 들어온다. 물고기를 찾아 고공비행을 하거나 한가로이 노니는 새들을 바라보고 앉았으려니 이런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새파란 갈댓잎들은 바람결에 '쏴아…' 청명한 소리를 내지르고, 질퍽한 갯벌 아래로는 참게들이 올망졸망 구멍을 찾아 바쁜 걸음을 뗀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전남 순천만의 모습이다. 외국인들도 한번 찾으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이곳은 재두루미, 짱뚱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해 '생태계의 보고'로도 불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자원을 활용하고 우리 고유의 생태관광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했다.

모델사업 대상지는 자연의 보전가치, 관광자원 매력도 등 여러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연안습지, 내륙습지, 섬 등 8개 자원 유형을 고려해 정했다. △생물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남 창녕군 우포늪(내륙습지) △잘 보전된 생태환경으로 국내외 관심이 많은 경기 파주시(비무장지대) 등이다.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제공

거문오름 | 한국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 거문오름. 주변에 용암동굴, 섶섬, 문섬, 범섬 등 생물권보전지역, 3곳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어 자연환경 자원이 우수하다.

서산 | 충남 서산시 천수만은 농경지와 담수호로 구성된 간척지. 매년 3백27종 40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날아든다.

우포늪 |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1천5백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국내 최대 습지보호구역이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순천만 | 전남 순천만은 갯벌습지 보호구역이자 람사르협약 등록습지로 잘 알려져 있다.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큰고니, 저어새 등 국제적 희귀조류 25종과 한국 조류 2백20여 종이 월동 및 서식지로 찾는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다.

백룡동굴 | 강원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에는 천연기념물 제260호인 백룡동굴이 있다. 국내 최초 생태체험형 동굴학습장으로 조성돼 올해 개장된다.

소백산 | 경북 영주는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자연자원이 잘 보존돼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신두사구 | 충남 태안은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제1호' 지역으로 32곳의 해수욕장과 갯벌, 1백여 개의 섬 등 천혜의 생태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구인 천연기념물 제431호 신두사구.

그 바다와 함께 걸었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들의 엄격한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이번 호부터 격주로 8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현재 7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중 동해 트레일은 삼척 '관동대로'와 영덕 '동해 블루로드'로 나뉘기에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동해안의 쪽빛 바다와 해안절경을 따라가는 동해 트레일은 크게 둘로 나뉜다. 경북 영덕 블루로드와 강원 삼척 관동대로가 그것이다. 영덕 강구항에서 고래불해수욕장에 이르는 영덕 블루로드의 길이는 50킬로미터나 되고, 삼척 고포해수욕장에서 갈령재까지의 삼척 관동대로는 24킬로미터에 이른다.

총길이 74킬로미터의 동해 트레일을 한 번에 섭렵하기란 쉽지 않다. A, B, C의 세 코스로 이루어진 영덕 블루로드만 해도 보통 체력의 여행자들에게는 꼬박 1박2일이 소요될 만큼 먼 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체력과 기호에 따라 한두 코스만 선택해 걸어도 영덕 블루로드의 독특한 매력을 실감할 수 있다.

영덕 블루로드의 세 코스는 저마다 색다른 풍경과 정취를 보여준다. 강구항에서 고불봉과 풍력발전단지를 거쳐 해맞이공원까지 이어지는 A코스(17.5킬로미터)는 바다를 꿈꾸는 산길이다. 그리고 해맞이공원에서 대탄, 오보, 노물, 석리, 경정, 차유 등의 갯마을을 둘러본 뒤 축산항에 도착하는 B코스(15킬로미터)는 환상의 바닷길이다. 마지막으로 축산항을 출발해 대소

영덕 블루로드의 B코스가 끝날 즈음에 만나는 해변.
오른쪽에 축산항 죽도산이 우뚝하다.

고불봉 직전의 능선길에서 바라본 고불봉과 영덕읍.

영덕 블루로드가 지나는 대소산 봉수대에서 바라본 축산항의 해돋이.

산 봉수대와 고려시대 유학자 목은 이색의 산책로, 괴시리 전통 마을을 경유해 고래불해수욕장에서 끝나는 C코스(17.5킬로미터)는 선인들의 자취를 더듬는 답사길이다. 심신이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긋하게 각 코스의 풍경과 정취를 즐기려면 하루에 한 코스만 걷는 것이 적당할 성싶다. 필자도 A코스 전체와 B코스의 일부를 1박2일 일정으로 걸었다.

영덕 블루로드가 시작되는 강구항은 영덕대게의 본고장이다. 강구항 사람들은 언제 봐도 생기발랄하고 부지런하다. 엄동설한에도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억척스레 살아가는 그들의 삶터를 엿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저절로 솟는다.

오늘날 강구항 주민들의 희로애락은 대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대게 전문점이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대게를 팔거나 잡는 일로 생계를 꾸려간다. 대게가 많이 잡힐 때에는 포구 전체가 축제기간처럼 북적거리고, 대게 금어기(6월 1일~10월 31일)에는 파장한 장터처럼 한산하다. 대게가 많이 잡힌 날의 아침에는 수천, 수만 마리의 대게를 수협 어판장에 가득 펼쳐놓고 경매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영덕대게 본고장 '강구항'에서 시작되는 블루로드

강구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강축해안도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영덕 블루로드의 일부 구간과도 겹치는 이 해안도로는 해맞이공원과 축산항을 거쳐 대진해수욕장까지 27킬로미터가량 이어진다. 왼쪽으로 나지막한 산자락, 오른쪽으로 창망(滄茫)한 동해바다를 끼고 달리는 길이다. 오른쪽 차창 밖으로 줄곧 펼쳐지는 쪽빛 동해바다가 가슴을 뻥 뚫리게 해준다.

하지만 영덕 블루로드의 A코스는 막바지 구간에서나 이 해안도로를 만나게 된다. 강구항의 시작 지점을 출발하자마자 곧장 비탈진 고샅길을 가로질러 약 5분 만에 산등성이로 올라선다. 고깃배들이 쉼 없이 들락거리는 강구항과 오십천 하구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내 신축 중인 축구장의 진입로 공사가 한창인 산중턱을 지나면, 고불봉까지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길이 시작된다. 진입로 공사로 사라진 길을 찾느라 적잖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고불봉으로 가는 산길은 비교적 평탄하다. 산등성이를 따라 끊임없이 오르내리거나 구불거리는 길의 율동감이 경쾌하다. 하지만 숲과 잡목에 가려 바다 조망이 답답한 데다 단조로운 풍경이 계속되는 탓에 지루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영덕 블루로드의 진면목은 강구항에서 8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고불봉 정상(2백35미터)에 올라서야 실감할 수 있다. 천혜의 전망대

밤샘 조업을 마치고 강구항에 막 돌아온 대게잡이 어선들.

인 고불봉 정상에서는 서쪽으로 영덕읍내와 오십천 물길, 동쪽으로 망망한 동해바다와 풍력발전단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남쪽으로는 강구항에서 고불봉까지 걸어온 능선길이 시원스럽게 조망된다.

고불봉에서는 영덕 풍력발전단지가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가는 길은 만만치 않다. 비탈진 산길을 내려온 뒤에 찻길을 건너고, 다시 비탈길을 한동안 걸어야 풍력발전단지에 들어선다. 고불봉에서 풍력발전단지를 거쳐 A코스의 종점인 해맞이공원까지 가는 길은 강구항에서 고불봉까지의 길만큼이나 멀다. 그래도 이수(里數)가 늘어날수록 바다가 한결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준다.

큰 산불로 황폐해진 산등성이에 들어선 영덕 풍력발전단지에는 24기의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있다. 영덕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이곳에서는 연간 9만6천6백80메가와트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이는 2만 가구인 영덕군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태양, 바람, 물, 지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원리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신재생에너지관이 문을 열어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도 더욱 풍성해졌다.

풍력발전단지에서 조금만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면 해맞이공원에 당도한다. 이곳 역시 산불이 나 황무지로 변한 산비탈이었다가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공원의 중심에는 영덕대게를 형상화한 창포말등대가 우뚝 서 있고, 그 주변에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해와 코발트블루 빛깔의 바다를 감상하기에 좋은 전망데크가 마련돼 있다. 또한 공원 곳곳에는 야생화 꽃밭이 꾸며져 있어서 꽃피는 시절에는 마치 동화 속의 풍경처럼 화사하다.

갯바윗길도 솔숲길도 푸른 바다 끼고 굽이굽이 이어져

해맞이공원에서 시작되는 영덕 블루로드 B코스는 줄곧 푸른 동해바다를 옆에 끼고 이어진다. 말 그대로 푸른 바닷길, '블루로드'이다. 때때로 길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따라가기도 하고, 급경사의 계단을 오르기도 한다. 또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갯바위를 넘어가는 구간도 있고, 솔잎이 푹신하게 깔린 솔숲을 가로지르기도 한다. 바닷가의 솔숲길과 갯바윗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해안을 경비하는 초병들의 순찰로이기도 했다.

창망한 동해바다를 굽어보는 산등성이의 영덕 풍력발전단지(위).
강구항과 고불봉 사이의 솔숲 능선길(아래).

길을 굽이돌 때마다 불쑥 나타나는 아담한 어촌마을과 초승달 모양으로 펼쳐지는 해변의 정경이 퍽 인상적이다. 그중에서도 축산면 차유마을은 영덕대게의 원조마을로 알려져 있다.

또한 블루로드가 지나는 갯바위에서는 감성돔을 노리며 낚싯대를 드리운 조사(釣士)들의 모습도 군데군데 눈에 띈다. 아담한 포구와 울긋불긋한 민가 몇 채가 있는 어촌마을인 차유마을에서 조붓한 솔숲길을 30~40분 걸으니 활처럼 휘어진 백사장이 눈앞에 펼쳐진다. 축산항 뒤편에 우뚝 솟은 죽도산이 바로 코앞이다. 백사장의 끝에 가설된 작은 현수교를 건너고, 최근 완공된 나무계단 산책로를 이용하면 등대가 서 있는 죽도산 정상이 지척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도산 정상에 올라섰다. 어느새 해는 지고 땅거미 내려앉은 뒤라, 사위가 적막하다. 이따금씩 바람결에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파도 소리가 적막을 깨뜨린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가슴 뿌듯하다. 한편으로는 전 코스를 섭렵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다. 하지만 영덕 블루로드는 한 번만 걷고 말 길은 아니다. 남은 길에 대한 아쉬움은 가슴에 묻은 채 죽도산을 내려왔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여행 정보

코스 정보

각 코스의 대략적인 소요 시간은 A코스 6시간, B코스 5시간, C코스 6시간이다.
강구터미널의 대합실과 강구항의 관광안내소에는 영덕 블루로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영덕군 관광진흥협의회(054-730-6392)가 제작한 영덕 블루로드 안내서가 비치돼 있다.

숙박

강구터미널 2층에는 동해모텔(054-733-4512)이 있고, 강구항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삼사해상공원 일대에는 오션뷰호텔(054-732-0700), 리베라호텔(054-734-6886), 삼사파크(054-733-3001) 등의 숙박업소가 몰려 있다.
그리고 강축해안도로변에도 창포해맞이펜션(010-7749-9114), 해오름펜션(054-734-1159), 파라다이스모텔(054-732-1320), 바다여행펜션(054-734-3651) 등의 숙박업소가 즐비하다.

맛집

강구항 일대에는 대게 전문점이 1백여 곳 이상 몰려 있다. 어느 집이나 메뉴와 가격, 맛 등은 비슷한 편이다.
그리고 A코스 초입의 대게종가(054-733-4445), B코스의 석동횟집(054-732-4918), C코스 초입의 청솔대게횟집(054-732-5028) 등에서는 문화생태 탐방로 도보여행자 여권에 도장을 찍어준다.
그 밖에 영덕읍내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국제식당(해물잡탕 · 054-734-2433), 차유마을의 돌산횟집(가자미회 · 054-732-9550), 축산항의 실비식당(가정식백반 · 054-732-4042), 고래불해수욕장 북쪽 끝의 정직한바다횟집(자연산 생선회 · 054-733-2037) 등은 맛집으로 추천할 만하다.

가는 길

승용차 | 중앙고속도로 서안동나들목(34번 국도 · 안동 방면)→안동 시내→청송 진보→영덕읍(7번 국도)→강구항

대중교통 |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는 안동을 경유하는 영덕행 시외버스가 1일 9회 운행한다. 영덕까지 4시간 30분 소요. 영덕읍내와 강구항 사이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수시로 운행한다.

일본 프로야구에 부는 韓流

독수리 오형제 열도에 뜬다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 뛰어든 5인의 야구 한류파(韓流派)가 스프링캠프를 기대 속에 마쳤다. 이들은 2월 1일부터 미야자키, 오키나와 등에서 한 달여 동안 전지훈련을 치른 후 현재 시범경기를 치르고 있다. 김태균, 이범호가 소속된 퍼시픽리그는 3월 20일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승엽, 임창용, 이혜천이 활약하는 센트럴리그는 3월 26일 개막전을 치른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 모습을 통해 이들 '한류 5총사'의 정규 리그 활약상을 예측해봤다.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승엽
"다카하시와 1루 싸움 보란 듯이 승리할 것"

동아DB

지난 2월 21일 미야자키 선마린스타디움. 소프트뱅크와 벌이는 연습경기를 앞두고 요미우리의 수비훈련이 시작됐다. 그런데 1루에는 이승엽과 다카하시 요시노부가 함께 송구와 포구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일본 진출 7년째를 맞는 이승엽에게 올해가 가장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원래 외야수인 다카하시는 요미우리의 황태자로 대접받는 인물이다. 1년 만에 허리 부상을 딛고 복귀했는데 외야진에 자리가 없자 1루수로 전향해 이승엽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연습경기 내내 다카하시가 선발 출전하고 이승엽이 6회부터 바통을 잇는 기용 방식이 이어졌다. 그로부터 며칠 뒤 두산과 벌인 연습경기에 앞서 두산 측 선수식당을 찾은 이승엽은 "아무래도 다카하시 때문에 (선발 출전은) 힘들 것 같다"며 어두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하라 다쓰노리 감독은 2월 28일 세이부와 경기를 치르기 전에 주전 라인업을 공개했는데 역시 선발 1루수는 다카하시 차지였다. 아쉽게도 이승엽이 벤치 멤버로 개막을 맞이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승엽은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겠다"며 굳은 각오를 드러내고 있지만 현실은 불리한 상황이다. 흔치 않을 기회에 쾌조의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다카하시의 부상이 재발하는 변수가 있어야 주전 재발탁이 가능하다. 이승엽은 올 시즌 4년 계약 기간이 끝나지만 요미우리에 남고 싶어 한다. 하지만 첫 출발이 힘겹다.

지바 롯데 마린스

김태균
"4번과 1루는 내 것… 홈런 30개 쏜다"

동아DB

지바 롯데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오키나와 이시카키 섬에서 단연 화제의 인물은 김태균이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2009년 WBC 대표팀 4번 타자인 김태균에게 지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롯데의 새로운 4번타자 후보로 팀의 운명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이 뉴스다. 1월 초 일본 입국 때 그의 야쿠자 보스 같은 옷차림을 두고 '마쿠하리의 군기반장'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더니 훈련 중 체력 부족으로 혼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 다른 별명도 붙었다. 곰인형 '푸'. 곰 같은 몸집이 친근감을 주기 때문이다.

김태균은 4번타자와 1루수 혹은 지명타자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2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인정을 받았다. 3월 1일 주니치와 맞붙은 시범경기에서도 나고야돔의 중앙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때려냈다.

특히 일본 투수들의 까다로운 변화구에 대응하는 데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니시무라 노리후미 감독은 그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니시무라 감독은 지독한 훈련량으로 정평이 났지만 김태균은 자율훈련을 보장받을 정도다.

2004년 이승엽의 롯데 입단 때보다 훨씬 나은 성적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 시즌 30홈런이 김태균의 목표. 무엇보다 이국생활의 외로움, 주변의 과도한 기대감을 떨쳐내는 것이 숙제다.

소프트뱅크 호크스

이범호 "감히 나를 의심해? 나 이범호야"

동아DB

소프트뱅크의 전지훈련지인 미야자키엔 이범호에 대한 뜬소문들이 적지 않게 돌았다. 아무래도 KIA와 두산이 인근에서 훈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범호에 대한 얘기가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소프트뱅크 코치진이 이범호의 타격과 수비에 크게 실망했다는 말이 자주 들려왔다. 심지어 이범호를 영입한 스카우트 담당자가 해고됐다는 설도 나왔다. 모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범호에 대한 평가가 낮은 분위기였다.

미야자키 아이비 구장에서 만난 이범호도 자신을 향한 이런 눈초리를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다소 지친 기색이었다. 거의 매일 별도의 수비훈련과 타격훈련을 받느라 육체적으로도 힘겨워했다. 일본 스포츠신문들은 이범호가 경쟁자인 마쓰다 노부히로에게 뒤져 있고 2군에서 개막을 맞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이범호는 원래 늦게 시동이 걸리는 선수다. 역시 시범경기에 돌입하자 의미 있는 활약을 했다. 2월 27일 히로시마와 벌인 첫 시범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를 터뜨린 것. 이 안타로 아키야마 고지 감독의 눈빛도 달라지고 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본 투수들에게 얼마나 빨리 적응해 자신감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야쿠르트 스왈로스

임창용 "부동의 소방수 야쿠르트 수호신은 나"

동아DB

일본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는 임창용의 팀 내 위치는 확고하다. 야쿠르트의 '행운남'이다. 헐값에 야쿠르트 유니폼을 입자마자 1백60킬로미터에 이르는 강속구를 뿌리며 2년 동안 61세이브를 수확하는 등 부동의 소방수로 활약했다.

올해는 오른손 미들맨 이가라시 료타의 메이저리그행으로 임창용에 대한 팀의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오키나와 캠프에서도 다카다 시게루 감독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느긋하게 훈련했다. 2월 27일(니혼햄)에야 겨우 첫 실전에 나설 정도였다. 가볍게 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세이브를 챙기며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임창용의 시즌 목표는 40세이브이자 통산 1백 세이브. 위력적인 구위와 3년간의 일본 리그 경험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 수치다. 아울러 일본 프로야구에서 기록된 최고 구속 1백62킬로미터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임창용은 올해 야쿠르트와 3년 계약이 끝난다. 강속구를 갖춘 임창용을 향한 타 구단의 구애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미 요미우리가 군침을 흘린다는 소문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야쿠르트 팬들과의 의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임창용은 일단 잔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야쿠르트 스왈로스

이혜천 "시범경기 무실점 거인 잡으러 나간다!"

동아DB

이혜천도 팀 내에서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워낙 활달한 성격이어서 일본 선수들과 허물없이 잘 지내 다카다 감독이나 아라키 다이스케 투수코치가 좋아한다.

아라키 코치는 선수들이 묻기 전에는 좀체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혜천에게는 직접 이것저것 살뜰하게 챙겨줘 동료들의 질투(?)를 살 정도다. 선수회장인 미야모토 신야도 자기 돈으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한다.

올해 이혜천은 선발투수 후보로 꼽혀 타격훈련까지 함께 받고 있다. 일단 시작은 좋다. 2월 28일 니혼햄과 치른 시범경기에서 4이닝 동안 안타 4개와 사사구 2개를 내줬으나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다만 아직 외국인 용병 경쟁자가 많아 자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굳이 선발만 고집하지 않는다. 외국인 선수들은 대개 선발을 고집하는데, 이혜천은 화통하게 감독의 뜻에 따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구단은 최근 몇 년간 라미레즈나 그레이싱어 등 팀 내 주축 선수를 빼간 요미우리와 대결하는 경기에 좌완이면서 빠른 공을 갖고 있는 이혜천을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 좌타자가 많은 요미우리 킬러로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G

글 · 이선호(OSEN 야구부장)

4대강 살리기
제 43 화
글·이연수 그림·이호

경칩도 지났으니 이제 슬슬 올 한 해 가족계획을 세워야지?
부끄~
몰라~

한 5천 개는 낳아야 하지 않을까?
어머!

자기도 알 돌보기 해야 하는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흥!

4대강 살리기 때문에 환경이 어수선할 테니 좀 많이 낳아야 살아남지 않겠어?

자긴 몰라도 너무 모른다!
?

4대강 사업이라고 준설공사나 제방보강 같은 토목공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같은 개구리들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습지 조성도 함께 해준다는 거 몰라?

홍수 조절을 위한 저류지도 모두 결국엔 친환경적 공간이 될 거거든!

근데 자기야, 그럼 우리의 천적인 물새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어머!

출산이 경쟁력이니 아기를 많이 낳아야지!
그럼, 그럼!

소리 내 읽으면 아프리카가 어느새 내 곁에

성우 서혜정이 추천하는 〈하쿠나 마타타 우리 같이 춤출래?〉

'X파일'의 스컬리, '위기의 주부들'의 수전, '세일러문'의 비키, '독수리 5형제'의 준.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답은 '성우 서혜정이 연기한 캐릭터'이다. 사람들은 이름보다는 목소리로 그를 기억한다.

그런 그가 성우생활 28년 만에 매우 독특한 캐릭터를 맡아 '성우 서혜정'이란 이름을 널리 알렸다. 똑같은 상황에서 남녀가 얼마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코믹하게 비교해주는 tvN '롤러코스터'의 인기코너 '남녀탐구생활'의 내레이션을 맡아 인기몰이를 한 것.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란 식의 '해요체' 코멘트를 기계같이 무미건조한 음성으로 읽어주는 그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을 배꼽 잡게 했다.

최근 〈속상해하지 마세요〉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펴내 자신의 험난했던 인생사를 솔직하게 드러낸 서 씨는 "성우에게 책이란 늘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했다.

"어렸을 때 혼자 자라서 늘 책과 함께 놀았어요. 책 속의 활자를 크게 소리 내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캐릭터 속에 빠져들어 감정을 이입하게 되죠. 그러던 습관이 성우가 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늘 대본을 읽어야 하기에 그는 하루에도 수많은 글을 접한다. 그중에는 준(準)전문가 수준의 좋은 글도 가끔 눈에 띈다. 특히 좋은 글은 소리 내어 읽으면 그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기억에도 오래도록 남는다. 그가 추천한 여행작가 오소희의 〈하쿠나 마타타 우리 같이 춤출래?〉는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며 머릿속에 집어넣은 책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다.

젊은 엄마와 9세 아이의 소소한 에피소드 감각적으로 그려내

"예전에 KBS의 '라디오 여행기'란 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낭독해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용감무쌍한 젊은 엄마와 아홉 살 난 장난꾸러기 아들이 떠나는 아프리카 여행기라서 그런지 다른 여행책에 비해 순수하고 따뜻한 시선이 곳곳에 깃들어 있어요."

한 달 동안 이 책을 낭독하면서 그 자신도 '아들 데리고 여행 떠난 엄마'가 된 심정이었다. 자신의 감정이 책에 이입돼 작가와 일체감을 갖게 된 것. 생애 한 번뿐인 아프리카 뮤직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아픈 아이를 안고 춤을 추기도 했고, 탄자니아의 작은 섬 '잔지바'의 골목길을 헤매면서 아프리카의 원색적인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다.

"모자가 체험한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유쾌했는지 몰라요. 여행작가가 써서 그런지 글도 참 감각적이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작가가 여행 떠나기를 결심하는 상황이 나오는 '서문'이에요. 바다를 헤엄치는 모습을 여행에 비유했는데 '늘 멀어진 끝은 차고, 다가가는 시작은 따뜻하다'란 마지막 구절이 뭉클하더군요."

'솟아오르기'란 제목의 서문을 빠르게, 그러나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읽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새 이 책의 주인공이 돼 다시 한 번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잠깐의 여유가 주어진다면 프랑스를 꼭 한번 여행하고 싶어요.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의 한국어 해설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거든요. '내 목소리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낭만적이지 않나요?"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성우 서혜정은 여행작가 엄마와 초등학생 아들이 떠난 아프리카 여행서를 추천했다. 그는 "소리 내어 읽으면 여행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고 했다.

한 권의 책…
가만가만 오는 봄

옅은 초록빛이 배어드는 계절, 봄이다.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을 털고 찾아온 새봄의 향연 앞에 '희망'이 보인다. 따스한 봄날 오후, 해바라기를 하며 푸릇푸릇한 새싹을 내려다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선다. 이럴 때 그 기분을 더하는 책 한 권을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봄'과 '3월'에 어울리는 10권의 책을 골랐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책은 1980년대 시문학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시인 최승자의 6번째 시집 〈쓸쓸해서 머나먼〉이다. 최 시인이 투병생활을 하며 11년 만에 완성한 이 시집은 그간 보여줬던 시 세계를 아름답게 부순다. 도발적이고 강렬한 시로 사랑받던 시인은 이 시집에서 "오랫동안 아팠다. 이제 비로소 깨어나는 기분이다"란 말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내비친다. 이런 변화는 "내 詩는 지금 이사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을 통해 분명해진다.

이 시집을 추천한 소설가 신경숙은 "최 시인의 시집 속에서 '혹한의 겨울이 지나고 봄빛이 가만가만 찾아오는 3월 같은 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 모든 낙관주의자들의 즐거운 인생 비결 〈옵티미스트〉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하다가도 이내 업무 스트레스로 짜증과 두려움이 앞선다면 로런스 쇼터의 〈옵티미스트〉를 권한다. 영국의 작가 겸 코미디언인 저자는 '아침마다 침대에서 뛰쳐나올 만큼 즐거운 인생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세상의 모든 낙관주의자들을 찾아 다니며 이 책을 썼다. 주류 언론사에 속한 언론인도 아니고, 이름난 작가도 아닌 그의 인터뷰 요청을 완벽하게 응해준 이는 없었다. 그래도 그는 자신 있게 '당신은 왜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는가'란 질문을 내뱉는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해럴드 핀터, 홀로코스트 생존자 트루디 레비 등 수십 명의 유명 인사들이 그의 질문에 답했고 저자는 이를 재치있는 입담으로 전해준다.

스페인 빌바오를 관광도시로 일으켜 세운 구겐하임 미술관의 성공담은 익히 알려진 사실. 이 건물을 만든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삶을 다룬 〈게리〉가 출간됐다. 그가 성공한 건축가로 회자되는 것은 누구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건축물에 담아내기 때문. 게리의 건축물은 리듬, 색감, 운동 등 여러 특징을 지녀 마치 '살아 있는 건축물' 같다는 평을 듣는다. '자유를 꿈꾸는 물고기의 움직임' 등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축 모티프를 얻는다는 그의 건축 이야기를 통해 자연이 생동하는 봄을 감각적으로 느껴보자.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kpec.or.kr

쓸쓸해서 머나먼
최승자 지음 · 문학과지성사 펴냄
1980년대 시문학의 떠오르는 아이콘이던 최승자 시인이 11년 만에 병상에서 일어나 쓴 시집 | **추천** 신경숙(소설가)

마오의 제국
필립 판 지음 · 김춘수 번역 · 말글빛냄 펴냄
중국 특파원을 지낸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바라본 중국의 어제와 오늘 | **추천**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메두사의 시선
김용석 지음 · 푸른숲 펴냄
신화, 과학, 철학의 삼각관계의 미묘함을 명쾌하게 소개하는 책
추천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핀란드가 말하는 핀란드 경쟁력 100
일까 따이팔레 지음 · 조정주 번역 · 비아북 펴냄
다양한 사회적 혁신을 이룬 핀란드의 모습을 소개한 책
추천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아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지배한다
매튜 메이 지음 · 박세현 번역 · 살림Biz 펴냄
매력적인 아이디어 뒤에는 언제나 '우아함의 법칙'이 움직이고 있음을 밝히는 책 | **추천**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원더풀 사이언스
나탈리 앤지어 지음 · 김소정 번역 · 지호 펴냄
퓰리처상을 받은 과학 저널리스트가 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담은 책 | **추천** 최영주(포스텍 수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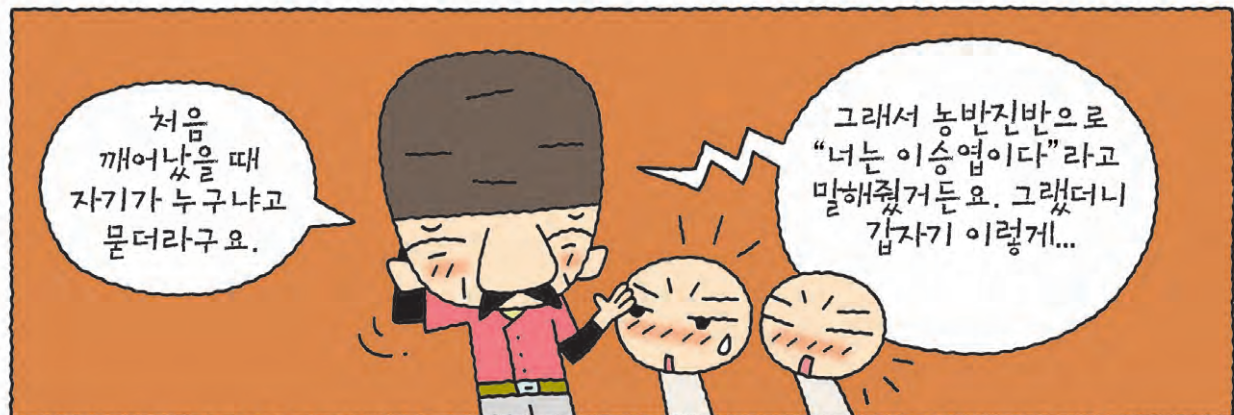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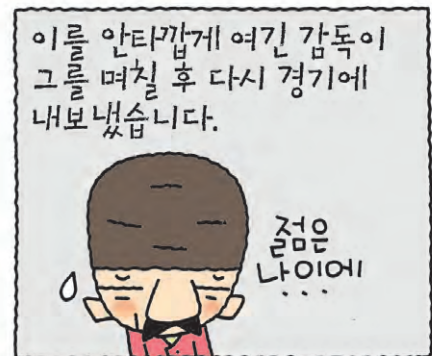
게리
말드레드 프리드먼 외 지음 · 이종인 번역 · 미메시스 펴냄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프랭크 게리의 건축세계를 담은 책
추천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옵티미스트
로런스 쇼터 지음 · 정숙영 번역 · 부키 펴냄
낙관주의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조명한 책 | **추천** 이한우(조선일보 기자)

문화적 혼혈인간
박희권 지음 · 생각의 나무 펴냄
외교관으로 세계무대를 경험한 저자가 젊은이들을 상대로 글로벌 시대 성공전략을 제시한 책 | **추천**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베컴 머리 힙합 선생님
노혜영 글 · 신민재 그림 · 교학사 펴냄
아이들이 새로 부임한 선생님과 만나면서 소통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을 그린 동화 | **추천**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이금이(아동문학가)

마음 '다시' 먹기

글과 그림 · 최영순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한 인간이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윌리엄 제이스(미국 심리학자)

Culture

가슴 적시는 따뜻한 가족애 무대에서 만나는 '레인맨'

연극 '레인맨'

일시 3월 28일까지 화·목·금요일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3시,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공휴일 오후 2시, 6시(월요일엔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VIP석 8만8천원, R(지정)석 5만5천원, R(자유)석 4만4천원, S(지정)석 3만3천원, S(자유)석 2만6천4백원, 국가유공자만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443-8695~6 www.sac.or.kr

영국과 일본 무대에서 영화 못지않은 성공을 거둔 연극 '레인맨'이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할리우드 배우 조시 하트넷과 연기파 배우 애덤 고들리가 각각 동생과 형으로 출연한 영국 버전은 2008년 런던 아폴로 극장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2007년 상연한 일본 버전의 '레인맨' 또한 일본 열도를 눈물바다로 만드는 흥행을 기록한 바 있다.

연극은 1989년 더스틴 호프먼,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레인맨'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주식 트레이더인 동생 찰리가 자폐아 형 레이먼을 만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이야기다. 줄거리는 영화와 흡사하지만 연극 무대가 지닌 특유의 따뜻함과 생동감이 영화 이상의 감동을 전한다는 평가다.

소극장이라는 친밀한 공간에서 열연을 펼치는 국내 최고 남자배우의 연기 대결을 보는 것 또한 이 작품의 또 다른 재미다. 연극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막을 올린 한국 버전의 '레인맨'에는 뮤지컬배우인 남경읍과 친동생 남경주, 탤런트 박상원과 원기준이 짝을 이뤄 레이먼과 찰리 역으로 출연한다.

특히 남경읍, 남경주 형제가 한 무대에 오르기는 10년 전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이후 처음. 한국 1세대 뮤지컬 배우라 불리며 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남경읍은 "첫 등장 때부터 많이 떨었다. 대선배님들도 무대만 보면 떨린다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레이먼을 열연해 보는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연극을 준비하면서 "천재성 자폐아들의 개인적인 습관까지 두루 연구했다"는 박상원의 연기도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는 마찬가지. 연출을 맡은 변정주 감독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은 배울 것이 더 많다"며 "이 연극을 통해 가족애를 느껴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창작 무용극 '나례(儺禮)'

일시 3월 12일 오후 7시 30분, 3월 13~14일 오후 5시
장소 극장 용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학생석(2층)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1544-5955 www.theateryong.or.kr

나례(儺禮)는 본래 재앙과 병마의 근원인 잡귀를 쫓아내고 복된 새해를 맞으려고 고려 초부터 궁중에서 행하던, 신명나는 의식이다. 여기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창작무용극 '나례'에는 무당춤과 처용무, 궁중정재, 진도북춤, 봉산탈춤 등 가무악적인 요소들이 가득하다. 처용무와 결합하는 첨단 기법의 영상, 하늘을 나는 용과 종이 인형 등 다양한 오브제가 무용수들의 춤과 어우러져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시대를 초월한 팝아트의 제왕, 앤디 워홀의 위대한 세계

일시 4월 4일까지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10시~오후 7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2, 3층
관람료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천원, 장애인(3급 이상은 동반 1인까지, 3급 이하는 본인만) 무료
문의 02-548-8690 seoulmoa.seoul.go.kr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 SACK, Seoul, 2009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시회가 개최됐을 만큼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친숙한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국내 최대 규모 회고전. 총 3백85점의 작품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는 워홀 자화상과 마이클 잭슨, 마릴린 먼로, 비틀즈 등 유명인사의 초상화 1백여 점을 공개한다. 국내 전시에는 좀처럼 소개되지 않던 추상 이미지 중 그림자 시리즈와 군인들의 위장복 같은 느낌의 캐머플라주 패턴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기대됩니다! 4대강살리기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아빠랑 낚시하고, 엄마랑 인라인 타고!
강변음악회가고, 문화재들 보고!
홍수 잡고, 가뭄막고!
강가에서 캠핑도 하고, 밤하늘 별도 보고!
철새도 오고, 물고기들도 놀고!
물도 좋고, 사람도 좋고!
강 좋고, 바람좋고!
아빠~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강물 가득
행복 가득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부모보다는 아이의 인생이 훨씬 더 깁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낳고 대한민국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